

당신의 매력을
발산할 시간이다.

유역비

클래식함과 모던함에 담겨있는
아름답고 순수한 요소들의 가치를 해석하여
심플함과 변함 없이 영원할 당신만의
매력이 담겨질 시간속에
모두가 함께 할 것이다.
티소 엠베서디 유역비가 적용한
티소 발라드 시계는 80시간 동안 작동되는
파워매틱 80 무브먼트와 강인한 내구력과
지속력을 바탕으로 더욱 정확한 시간 측정을
가능하게 하는 실리콘 밸런스 스프링
기술력을 탑재하고 있다



SILICON BALANCE
SPRING



COSC

CONTROLE OFFICIEL SUISSE DES CHRONOMETRES
Reproduit avec l'autorisation du COSC



T+ TISSOT THIS IS YOUR TIME

Style

조선일보

JULY 2017
vol.159



Cartier

Cartier Magicien High Jewellery Collection



CHANEL

www.chanel.com



20



표지에 등장한 이미지는 까르띠에의 새로운 하이 주얼리 컬렉션 마지시앙(Magicien)의 루미넌스 네크리스(Luminance Necklace)이다. 마지시앙은 프랑스어로 마법사라는 뜻으로, 까르띠에가 구현하는 마법을 테마로 한 경이로운 하이 주얼리 작품을 탄생시켰다. 트리아앵글형 로즈 컷 다이아몬드와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등 다채롭고 탁월한 커팅 기법으로 생명을 더해, 환상적이면서도 신비로운 자태로 시선을 사로잡는다. 문의 1566-7277



08

Style 조선일보 Issue.159 July 2017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피쳐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 · 뷰티 디렉터 | 배미진 mijin@chosun.com 에디터 | 권유진 yjkwon@chosun.com
에디터 | 이지연 easyear@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옥 okida0820@naver.com
교열 | 이정민 정고 · 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식 adjoons@chosun.com
박승현 shpark@chosun.com 재무 | 이민희 mhlee@chosun.com
분해 · 재판 | 새빛 그래픽스 인쇄 | 타라티피에스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413
현대 하이패리온 비즈니스센터 110호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339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원시,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각주로 두 번 발행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페셜 에디션은 임의로 발행됩니다.



stylechosun.com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풍성한 선물 이벤트, 실질적인 정보의 럭셔리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럭셔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m

- 12 **CHÉRI SAMBA** 까르띠에 현대미술재단이 서울시립미술관과 손잡고 펼쳐고 있는 소장품 기획전 〈하이라이트(Highlights)〉전. 오는 8월 15일까지 열리는 이 흥미로운 전시에 소개된 콩고 현대미술의 대표 주자 세리 삼바(Chéri Samba)를 만났다.
- 14 **MAGICIEN** 다이아몬드와 사파이어, 에메랄드, 루벨라이트, 그리고 루비는 걸로 드러나는 아름다움을 넘어, 광채와 디자인, 색채로 에너지를 전달한다. 까르띠에 프라이빗 뷰잉 룸에 펼쳐진 하이 주얼리의 고귀한 자태.
- 20 **DREAM JEWELRY** 1백70년이 넘는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까르띠에의 하이 주얼리 컬렉션 '마지시앙(Magicien)' 관련 전시회가 지난 6월 12일부터 18일까지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렸다.
- 21 **GOLDEN TIME** 가장 클래식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품격을 지닌 골드를 입은, 남녀 모두에게 잘 어울릴 만한 브랜드 대표 골드 워치 컬렉션.
- 22 **A MONODRAMA** 원색의 계절 속에서 더욱 돋보이는 블랙 & 화이트의 차명적인 매력.
- 30 **CREATIVE INNOVATOR** "혁신을 멈추면 그 브랜드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말하는 라도의 CEO 마티아스 브레스찬(Matthias Breschan)을 만나 라도가 일으킨 혁신과 앞으로 라도가 나아갈 방향과 전략에 대해 물었다.
- 31 **INSTANT YOUTH** 마치 물처럼 촉촉한 크림이 아주 빠른 인티메이징 효과를 제공한다? 감각적인 뷰티 경험을 선사하는 시슬리가 산뜻한 텍스처에 깊은 영양을 담은 새로운 크림을 선보인다. 바로 블랙 로즈 스킨 인퓨전 크림이 그 주인공이다.
- 32 **HOT IN SUMMER** 무더운 여름에는 햇하고 생기 넘치는 컬러로 메이크업에 포인트를 줄 것. 오직 이번 여름에만 만나볼 수 있는 뷰티 서머 리미티드 제품을 소개한다.
- 33 **MAGICAL EYES** 대담하고 창의적인 컬러와 테크닉으로 메이크업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사엘이 아이 메이크업의 새로운 비전인 '웅브르 프리아미에르'를 선보인다.
- 34 **SUMMER SHADES** 트렌드하면서도 클래식한 디자인으로 멋진 러운 빛을 발할 레이벤의 서머 컬렉션.
- 35 **ART DE VIVRE** 지난 5월 30일, 통의동에 위치한 한옥 갤러리 '아름다움'에서 불광광 '아트 드 비브르(Art de Vivre)' 프레젠테이션이 열렸다.
- 36 **INNOVATIVE INSIGHT** 서울 디뮤지엄에서 진행되는 〈마드모아젤 프리베 서울〉. 디뮤지엄에서 만난 사엘 패션 총괄 사장 브루노 파블로브스키는 이 전시에 대해 한마디로 이렇게 말했다. "사엘의 DNA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와 함께 나는 사엘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이야기.
- 37 **HOMAGE TO ROMA** 지난 5월 22일, 로마 라르고 골도니의 필라 초 펜디 앞, 특별한 작품이 공개되었다. 이탈리아 예술가 주세페 페노네의 작품 'Foglie di Pietra(돌의 잎사귀)'가 그것이다.
- 38 **EDITOR'S PICK** 비킹스 시즌을 앞두고 〈스타일 조선일보〉가 제안하는, 뷰티 피우처에 꼭 챙겨 가야 할 아이템.



MONTBLANC

Inspired by performance TIMENWALKER

Hugh Jackman and the new TimeWalker Chronograph

휴 잭맨과 새로운 타임워커 크로노그래프

새로운 타임워커 크로노그래프는 크로노그래프의 명가 미네르바 매뉴팩처의 탁월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모터 레이싱 정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montblanc.com/timewalker

Crafted for New Heights.



Official Timing Partner of the Goodwood Festival of Speed.





수잔라 베르데르프

Jewel
DEFINE BLUE

선명한 블루 컬러 주얼리는 여름을 더 눈부시게 완성한다. 토파즈, 사파이어, 탄자나이트가 연출하는 매혹적인 순간.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블루 토파즈를 건축적인 느낌의 볼드한 탁티 컷으로 세팅한 대담한 무사 칼렉션 네크리스 1천4백만원대 **볼거리**, 블루 토파즈의 강렬한 텍스처가 선명한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루비노 펜던트 2백40만원대 **타사기**, 1900년대 티파니가 처음 발견해 공개한, 푸른색에 보석같이 싹 감도는 매혹적인 컬러의 탄자나이트 솔라이트 링 1천만원대 **티파니**, 강렬한 블루 사파이어가 세련미를 자아내는 티파니 T 스타일 펜던트 4백만원대 **티파니**, 블루 사파이어로 불꽃놀이로 표현한 피오니 링 9백30만원대 **타사기**, 블루 사파이어로 강렬한 밤의 눈을 묘사한 세르펜티 아이즈 온 네크리스 2천4백만원대 **볼거리**, 에티어 **베버진**



Fashion
I'M FINE!

어머마다 찾아오는 트로피컬 무드 중에서도 유독 패션 하우스의 사랑을 독차지한 파인애플 모티브. 디자이너의 자기 발명품 사물들 더해 선보이는 파인애플 모티브를 만나보자. 맨 위에서 시계 방향으로) 폭스의 래빗 피플 파인애플을 형상화한 퍼침 80만원대 **팬디 by 분디**, 한정색의 비즈 장식으로 파인애플 모티브를 표현한 샌들 99만원 **이유아주라 by 분디**, 파인애플 패치를 때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에이스 스니커즈 1백1만원 **구찌**, 트로피컬 무드 자수 장식의 슬림한 4208원 **수플리**, 각자 무드를 활영해 파인애플을 묘사한 미니 체인백, 15X15.5cm, 가격 미정 **아기라보**, 파인애플 가죽 지갑 43만원 **발렌티노 by 10 코르스 코요**, 에티어 **이저**

장미이 케팅기가, 장광용 케팅기(리프트) 수잔라 베르데르프



수잔라 베르데르프

Beauty
COOLING THERAPY

요즘 햇볕이 심상치 않다. 야외에 10분만 나가 있어도 피부가 뜨겁다 못해 따가울 정도니까 말이다. 피부의 열이 5°C 이상 오르면 노화와 잡티 생성이 빠르게 진행된다는 사실! 쿨링 효과로 열 오른 피부의 온도를 즉각적으로 식혀주고 풍부한 수분을 전달하는 쿨링 & 진정 효과의 코스메틱이 필요한 때다.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가장 간편하고 즉각적으로 피부 열을 식히는 방법은 **프러머 로즈 플로랄 토너**를 냉각기에 넣어 차가운 물에 묻혀 팩을 하듯 올려주는 것. 천연 진정수소 인장제인 피부를 빠르게 진정시키는 이 토너는 피부 유수분 밸런스를 맞추고 뛰어난 수딩 효과를 발휘해 미스트 대신 수시로 뿌려도 좋다(250ml 5만7천원대). 이와 함께 지워진 때문엔 발생하는 피부의 열을 차분하고 피부 온도를 즉각적으로 내려주는 데이 크림을 놓아줄 것. SPF 30의 자외선 차단 기능을 갖춘 **살바수 소션브로 크림**은 맨몸 피부 성분과 매스콜론 함유해 피부를 진정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자외선으로 인한 외 부 열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한다(50ml 15만원대). 바르는 즉시 시원한 쿨링 효과를 전달하는 크림도 서머 시즌 필수 아이템 **클라린스 하이dra-에센셜 쿨링 젤**은 바르는 즉시 피부에 상쾌함을 선사하는 쿨링 효과의 젤 텍스처 크림으로, 푸석하고 가렵거나 지친 여름철 피부에 강력한 수분을 공급하는 것이 특징. 크림을 도물하게 올려 수딩 팩처럼 사용하면 효과적(50ml 6만2천원). 시원한 스킨케어 기법과 즉각적인 열 타인의 수딩 크림인 **디올 하이dra 리프트 프러머 하이dra 에센셜 크림**은 물방울이 느껴질 정도로 촉촉한 수분감에, 발랐을 때 시원해지는 쿨링 효과가 달아오른 피부를 빠르게 진정시킨다(50ml 9만 원대). **7월 오일 프리 쿨링 수분 젤 크림** 역시 쿨링 효과를 갖춘 맨몸 유도에 상쾌함을 선사하는 즉시 피부 온도를 낮추면서 시원하게 수분을 채우고 피하는 식민하게 케어해주는 수분 크림이다. 7월의 핵심 성분인 방화 당단백질 추출물과 사막 식물 추출물을 함유해 하루 종일 피부에 촉촉한 수분을 공급하나, 이 제이이 활동도 걱정 없다(50ml 9만9천원대). 에티어 **겜유진**

INSIGHT

편안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들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Cars
더 경쾌한 질주를 기대하게 만든다, 프리미엄 신차 행진

하이엔드 카의 진화는 언제 봐도 감탄스럽다. 이미 상황 평준화를 이루었다고 여겨지는 프리미엄 자동차 세계에서도 신차들은 여전히 경쾌한 혁신을 거듭한다. 최근 소식을 일러온 신차들의 행보를 짚어본다. 우선 랜드로버의 인기 만점 프리미엄 패밀러 SUV 올 뉴 디스카버리는 이달 공개에 앞서 이미 서울 스타필드 코엑스홀과 IFC에서 전시되면서 시선을 끌고있다. 전 세계적으로 1백20만 대 이상의 판매고를 올린 디스카버리의 풀 체인지 모델인 올 뉴 디스카버리는 상인 7명이 여유롭게 탑승할 수 있는 7인승 풀 사이즈 구조에 최대 2,400L에 이르는 동급 최상의 적재 공간으로 프리미엄 패밀러 SUV에 필수적인 실용성을 갖췄다. 또 2, 3열 좌석을 스트리트폰으로 원격제어할 수 있는 인텔리전트 시트 폴드(Intelligent Seat Fold) 기능도 갖췄다. 판매가는 8천9백30만~1억7백90만원대(VAT 포함). '콤팩트 퍼포먼스 SUV를 내세우는 재규어 E-PACE도 기대되는 신차들이다. 재규어의 성질을 이르고 있는 럭셔리 SUV F-PACE의 뒤를 잇는 모델로, 스포츠카를 연상시키는 디자인과 고유의 성능이 조화를 이뤘다는 평을 듣고 있다. 실제로 스포츠카에서 파생된 재규어 특유의 사륜구동(AWD) 시스템을 적용했다. 7월 13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첫선을 보일 예정이며 국내 판매가는 5천만원부터 시작된다. BMW는 역동성을 강화한 X3, X4 스페셜 에디션 모델을 선보였다. 풀 LED 헤드라이트 등 프리미엄 편의 옵션과 M 스포츠 패키지를 추가한 X3 xDrive20d M 에어로다이내믹 프로 에디션과 X4 xDrive20d M 스포츠 패키지가, 가격은 각각 6천8백70만원과 7천2백50만원대로 책정됐다. 이 밖에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중형 SUV 쿼터의 고성능 모델인 '더 뉴 메르세데스-AMG GLC 43 4MATIC 쿼터와 최상위 SUV 라인업의 '더 뉴 GLS 500 4MATIC을 내놓은 데 이어 역동적인 디자인을 부각한 프리미엄 4 도어 쿼터인 '더 뉴 CLS AMG Line 에디션 2종을 선보였다. 8천7백50만~1억1백만원대. 에티어 **고성연**



메르세데스-벤츠



재규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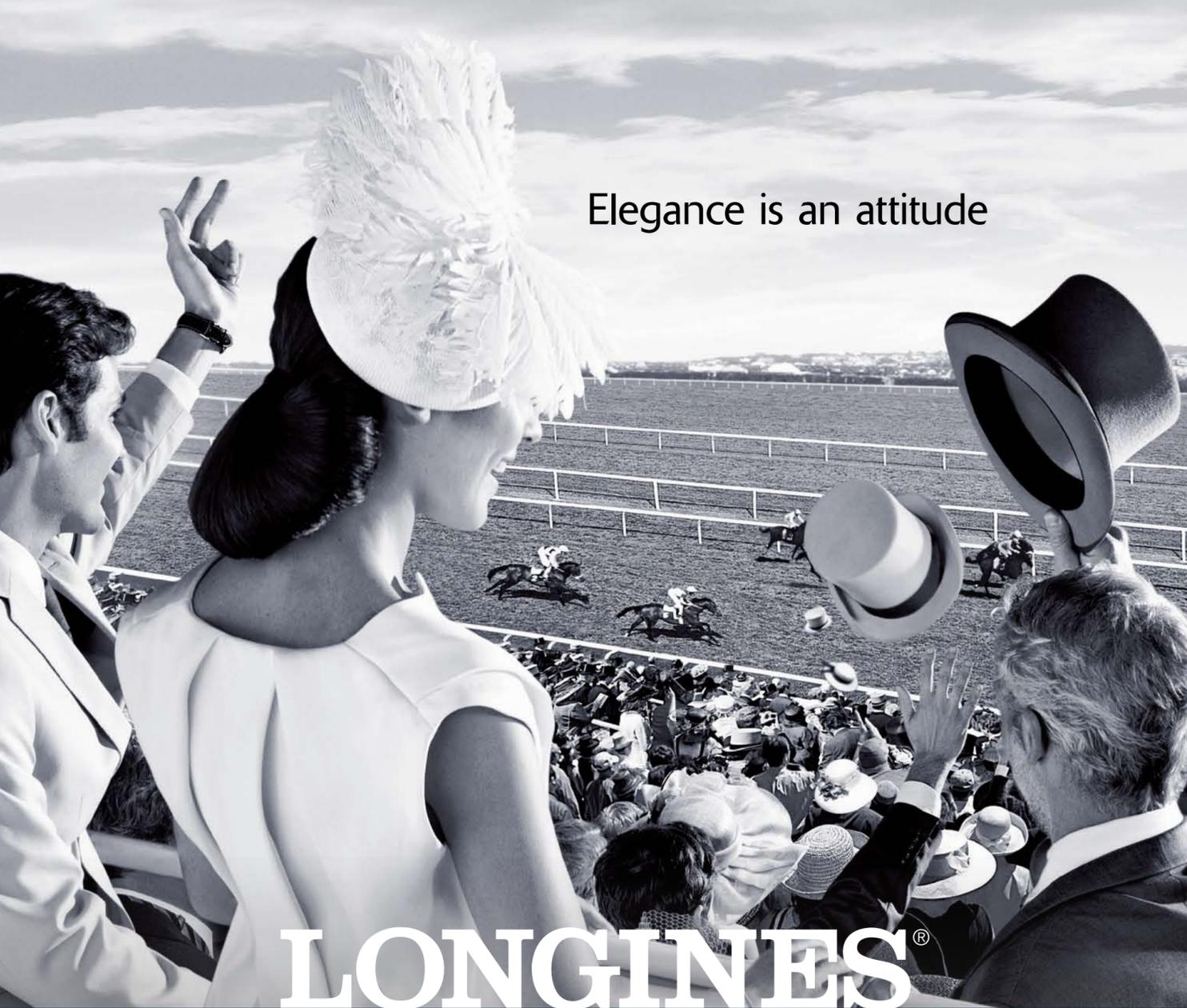


랜드로버



Hot Spot
칸텔파리 이탈리아 요리의 진수를 간직한 다이닝 공간, '섹션 A'

맛집이 즐비한 서울 이태원에서 단연 돋보일 만한 미식 공간이 탄생했다. 칸텔파리 이태리 언 다이닝의 정수를 맛볼 수 있는 '섹션 A(Section A)', 피렌체의 유명한 미슐랭 3 스타 레스토랑 '에노테카 핀치니(Enoteca Pinchinn)' 출신이래는 걸출한 이력을 자랑하는 비토리오 코치(Vittorio Cocchi)가 수석 셰프를 맡고 있는 곳으로, 투스카니의 전통과 오리엔탈 모던리즘을 결합한 독자적인 콘셉트를 내세운다. '트로 이태리 레스토랑'을 거머쥔 일본 도쿄의 레스토랑 '리바 델리 에트루스키(Riva degli Etruschi)'에서도 활약한 바 있다. 투스카니 전통 조리법에서 농장에서 직접 재배하는 제철 유기농 채소와 고추장, 막걸리 등 신선한 한국 식재료를 반영하는 비토리오 코치의 요리는 굳이 경쾌하거나 철학, 콘셉트를 부각할 필요 없이 맛의 미학만으로 충분히 수려하다. 대표 요리로는 올리브 오일로 콩피한 한치에 만년설 딸기와 생계 알을 곁들인 '칼라미 인 올리오 코투라', 마카로니 크림을 곁들인 '가르가렐의 파스타와 구운 참송이 버섯 장한 '가르가렐', 고추장 소스로 풍미를 더한 '마이엘리 코트', 시원한 막걸리 향의 젤리 토핑을 얹은 '사파 타르토 메유인' '코스스타타 디 델레' 등이 있다. 할라카인 가족대로 파인다이닝의 문턱을 살짝 낮춘 섹션 A 옆에는 이태리의 트렌디한 맛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피자무찌(Pizza Muzzo)도 나란히 자리한다. 에티어 **고성연**



Elegance is an attitude

LONGINES



론진 부티크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 EAST 02) 6905-3519 • 롯데 영등포점 02) 2164-5194
신세계 본점 02) 310-1597 • 현대 판교점 031) 5170-2186 • AK플라자 수원점 031) 240-1123

롯데백화점 대전점
신세계백화점 영등포점 경기점 센텀시티점 의정부점 충청점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 • 현대백화점 울산점 부산점 • 아워패션 롯데월드몰
롯데면세점 본점 코엑스점 부산점 제주점 워드타워점 • 신라면세점 본점 제주점 인천공항점
신세계면세점 명동점 • 신라아파트면세점 • 갤러리아면세점 G3 • 동화면세점 • 두타면세점

Longines DolceVita



for her
Selection

부드러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해변을 거니는 상상만으로도 여행의 설렘은 배가된다. 여성스러우면서도 우아한 리조트 룩을 만나보자. *photographed by kim do hyun*

여성의 손목에 가장 이상적인, 19mm의 앙증맞은 사이즈가 돋보이는 다이아몬드 세팅 라벨리 워치 96만원 티쏘.

유행치 못해 장점을 뽐내줄 히프로 향연의 유니버설 내추럴 28x20cm, 17만원 핑크 기아미 바버.

라피어 소재의 브라운 레더가 조화를 이룬 해리 백, 27x25cm, 3백40만원 로에베.

토즈 02-3438-6008
에르메스 02-542-6622
룩스타카 코리아 02-501-4436
파티아나 필라피 02-6905-3626
플롬보 비아 델라 스피가 02-511-2192
로저 바버메 02-6905-3370
10 포르스 꼬모 02-3018-1010
틀 포드 02-6905-3640
보타가 베네타 02-3438-7601
토리버치 02-515-4080
비아커 02-543-1270
발랑 02-6905-3585
로에베 02-6905-3470
디올 02-3480-0104
휴고보스 02-514-4088
티쏘 02-3149-8237

플러워 자수를 놓은 코트 원피스 85만원 휴고보스.



NEW BLACK SWAN


SWAROVSKI



for him
Selection

일상에서도 활용도가 높은 베이직한 아이템부터 이국적인 프린트가 인상적인 셔츠와 스웱 쇼츠, 파나마 햇까지, 남성을 위한 리조트 컬렉션.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베이시 코트
맨스와 함께
매우하기 좋은
유니섹스 60만원
부터 시작.

라센 재킷 또는 티셔츠에
다양하게 스타일링
가능한 파나마 햇 38만원
연스나 피토 by 10
고르스 꼬모.

그레이니 가족 소재의 블루 컬러
스트라이프 반지갑 60만원대 비버리.

백(흰)색(흰색)으로 컬러 라벤 셔츠
50만원대 무스 반으로 by 비버리.

세련된 느낌을
자아내는 가족
브레이슬릿 29만원
살비토레 피라카모.

블루 컬러의 셔츠, 스카프, 컬러의 클리어 선글라스 등
유니섹스 미시타사비 솔라리아에이션 1백만원대 올블링.

세련된 느낌을
자아내는 가족
브레이슬릿 29만원
살비토레 피라카모.

스타일리스 유혹성
이탈리아어형 에티에 아미엔

크라운 자수 포인트의 스웨이드
샌들 1백만원대 크리스찬 루부탱.

내추럴한 디자인의
가족 스트랩
샌들 1백13만원
빌렌토노 by 10
고르스 꼬모.

18세기 영국 탐험가
캡틴 제임스 쿡을
오마주한, 스포티한
오만의 하미 퍼크를
감탄 쿡 워치
2백98만원 라도.

귀여운 거북이 모티브가 그려진
남성용 스웱 팬츠 32만9천원 빌렌토노.

코즈메틱부터 액세서일까지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는
그레이 컬러 소지 가죽 파우치 90만원 홀도.

소스뿐 아니라 발목
길이의 크롭트 팬츠와
함께 매치하기
좋은 스웨이드 로퍼
1백만원대 에르메스.

브랜드의 아이덴티티가
문어는 고미노 패들
장식으로 꾸민 소지 가죽 캐리어.
45X40cm, 6만만원대 토즈.

동방원 1670-4810
로로피아나 02-546-0615
10 고르스 꼬모 02-3018-1010
비버리 080-700-8800
본더샵 02-3444-3300
살비토레 피라카모 02-3430-7854
크리스찬 루부탱 02-541-8550
룩스타카 코리아 02-501-4436
브루넬로 쿠치넬리 02-3448-2931
빌렌토노 02-3479-6150
벨루티 02-547-1895
홀도 02-6905-3534
에르메스 02-542-6622
토즈 02-772-3265
라도 02-2639-1964

오늘도 트롬은 맑습니다

해가 나지 않아도
미세먼지 날려도
집안 습기, 세균에도
끝끝한 빨래 냄새에도

트롬이라
걱정없이 맑습니다



트롬 건조기 | 날씨 / 세균 걱정없이
빨래 날리지 말고 트롬 건조하세요!

트롬 스타일러 | 매일 빨 수 없는 장마철
점점한 옷 건강하게 씻어 입으세요!

위생건조 | 미세먼지부터 세균 걱정이 깨끗하게 | 알뜰건조 | 유지비 걱정이 알뜰하게 | 간편설치 | 코드만 꽂으면 설치 끝!

LG TROMM 건조기 | LG TROMM styler

*스타일러로 미세먼지 95.9% 제거(Bertek) / 건조기(로 황색포도상구균, 녹농균, 백령균 99.9% 살균 Labod 인공(ATM) 건조기 1회 사용시간표 135분(ATM) 실험 기준) / 스타일러 1회 사용시간표 101분(사사 건조코스 90분 실험 기준) *실험실 측정값으로 실제 사용 환경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interview with

Chéri Samba

컨템퍼러리 아트의 다양성과 혁신성을 끊임없이 실험하는 수호자 역할을 해온 까르띠에 현대미술재단이 서울시립미술관과 손잡고 펼치고 있는 소장품 기획전 <하이라이트(Highlights)>전. 오는 8월 15일까지 열리는 이 흥미로운 전시에 소개된 아티스트들은 현대미술사에서 나름 의미 있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실력자들이지만, 한국에서는 다소 생소한 이름도 많아 작가의 면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중 파리를 묘한 '핑크로 표현할 정도로 개성 있는 색채 감각과 풍자적이고 유티 있는 텍스트를 가미한 화법으로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 콩고 현대미술의 대표 주자 세리 삼바(Chéri Samba)를 만났다.

“희한한 게 아이였을 때 제게는 막연한 직감이 있었어요. 어른이 되면 큰 인물이 될 것 같았고, 세계 여기저기로 여행을 많이 다닐 것 같았고, 커다란 짐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당시만 해도 저처럼 미래에 대한 직감을 갖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꿈이 실현되리라는 믿음을 갖고 기다렸죠. 신의 선물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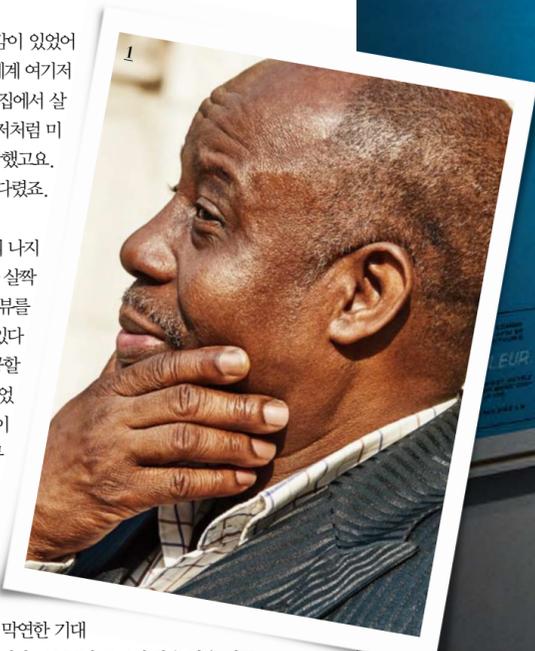
저 멀리 아프리카 콩고에서 온 60대 화가의 나지 막한 회상을 가만히 듣다 보니 절로 눈썹을 살짝 추켜올리게 하는 대목을 맞닥뜨린다. 인터뷰를 진행하다 보면 어린 시절 스스로 소질이 있다고 생각하긴 했어도 결코 이렇게까지 성공할 줄은 몰랐다는 얘기를 주로 접하기 때문이었을 터다. 활기 넘치는 동그란 눈매의 소년이 떠오르며 빙그레 미소가 지어졌다. 순진무구한 자신감과 당찬 신념의 소유자였던 이 소년은 실제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가 됐고, 지구촌 곳곳에서 열리는 전시를 위해 자주 비행기를 탄다. 한국은 외박지만 서울은 이번이 첫 방문이라는 세리 삼바

(Chéri Samba)의 이야기. 그렇다고 그가 막연한 기대

감을 품고 팔짱 끼고 기다리지만 한 건 아니었다. 1956년 콩고의 작은 마을 킨토 므빌라(Kinto M'Vuila)에서 대장장이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나고 자란 세리 삼바는 언제나 적극성이 돋보이는 충기 넘치는 소년이었다. 그는 이렇다 할 장난감이 없었던 터라 드로잉을 즐겼는데, 10대 초반부터는 잡지에 실린 만화를 모방한 그림을 그렸고, 주위에 돈을 받고 팔면서 종종 매진시킬 만큼 인기를 모았다. 여러모로 수완이 뛰어났던 그는 정원과 연못을 관리하는 일까지 맡으면서 가족을 부양하기에 이르렀다. 더 넓은 세상에 대한 갈증을 느낀 그는 마침내 학교를 그만두고 콩고의 수도인 킨샤사(Kinshasa)로 향했다. 광고나 로고를 제작하는 소위 간판장이로 직업 전선에 뛰어든 것이다. 그의 나이 열여섯이었다.

독특한 문화적 활력의 도시 킨샤사에서 꽃을 피우다

킨샤사는 흔히 '몽고' 하면 떠올리게 되는 콩고민주공화국(DRC)의 수도로 인구가 1천만 명 가까이 되는 꽤 큰 도시다(DRC는 '자이르'라고 불리던 옛 벨기에령 국가이며, 프랑스의 통치를 받았던 콩고공화국과는 다르다. 둘 다 1960년에 독립했다). 벨기에 식민지 시절부터 킨샤사는 문화적으로 독특한 활력이 흐르는 도시였고, 1920년대에는 근대 회화가 탄생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콩고로 이주해 살던 프랑스 화가 피에르 로맹-데스포세(Pierre Romain-Desfossez)의 활약은 더 기쁜진 거름이 됐다. 그가 차린 '아틀리에 격납고(Atelier du Hangar)'라는 이름의 미술 작업실에서 저마다 독자적인 스타일을 지닌 컬러 풀한 작품 세계를 구축한 벨라 사라(Bela Sara), 므웬제 키브완가(Mwenzé Kibwanga), 필리 필리 물롱고이(Pili Pili Mulongoy) 같은 현지 아티스트들이 나왔다. 재즈, 솔, 랩, 대중 댄스음악 등 도시 곳곳에 흐르는 음악도 역동성을 더했다. 이처럼 풍부한 문화적 자산을 바탕으로 1970년대 킨샤사에서는 세리 삼바를 비롯해 세리 세린(Chéri Chérin), 모케(Moke) 등이 포함된 예술가 그룹이 새롭게 두각을 나타냈다. 이들의 존재감이 현지 대중에게 확실히 각인된 계기는 1978년 킨샤사에서 열린 전시회 <도처의 예술(Art Partout)>. 사람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일상적, 정치적, 사회적 사건에서 받은 영감을 바탕으로 삼으면서 풍자적이면서도 유티 있게 다가갔기에, 대중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앞선 시대를 살다 간 여러 고마운 선배 아티스트들이 있었죠. 저희는 거기에 고춧가루, 소금 등 양념을 뿌려 맛을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맡은 게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저희는 그대로 따라 하지 않고 나름대로 스타일을 개발했고, 그런 도전이 콩고 현대미술을 더 발전하게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리 삼바의 경우에는 텍스트를 가미한 뚜렷한 색감의 스타일이 상징처럼 여겨졌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사람들의 시선을 빨리 끌 수 있을 뿐 아니라 난해하지 않게 예술을 접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했다고. “저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들려주고 싶었어요.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코드가 아니라 직접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죠.” 미술을 잘 아는 소수가 아니라 대중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을 추구했기에 그는 스스로와 동료들을 '대중 화가(popular painter)'라고 부르기도 했다. “하지만 서양의 팝 문화와는 다른 의미라는 점을 알아줬으면 합니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파리로 내디딘 첫 발걸음, 세계로 도약하는 토대가 되다

아무런 미술교육도 받지 못했던 작은 마을 출신의 간판장이에서 어느덧 자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화가로 거듭난 세리 삼바. 1980년대에 접어들어 그는 드디어 그토록 꿈꿔온, 해외 출장을 다니는 역동적인 인생의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된다. 프랑스의 한 언론 매체에서 주관하는 전시에 초대받아 생선 처음 비행기를 타고 파리로 간 것. 그가 국제적인 인지도를 얻게 된 결정적인 기회를 선사한 도시 역시 파리였다. 1989년 퐁피두 센터에서 <지구의 마법

사들(Les Magiciens de la Terre)>이라는 전시에 초대되었기 때문이다. 텐안면 사건, 베를린 장벽의 붕괴, 냉전 체제의 종식 등 국제사회에 일어난 대대적인 변화를 반영하듯 '비서구'를 조명하고 다양한 배경의 작가들을 소개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게 평가받는 전시다. 이후 까르띠에 현대미술재단이 후원하는 작가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거쳐 2004년 개인전을 가졌고, 이어 2007년 베니스 비엔날레에 참가하면서 그는 '아프리카 미술의 외교관'이라는 별칭을 얻을 만큼 유명세를 꺾치게 된다. 까르띠에 현대미술재단은 2년 전인 2015년, 거의 한 세기에 걸쳐 진화해온 콩고 미술과 세리 삼바를 비롯해 미술사를 다채롭게 수놓은 아티스트들을 되짚어보는 전시 <아름다운 콩고(Beauté Congo 1926-2015)>를 개최하기도 했다. 세리 삼바의 매력은 당대 현실에 대한 신랄한, 하지만 유머가 깃든 풍자에서 비롯된다. 예컨대 2007 베니스 비엔날레에 출품한 'Les Tours de Babel Dans le Monde'라는 작품을 보면 인간의 오만함 때문에 언어가 달라지면서 소통이 불가능해진 바벨탑 얘기를 빚어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중앙아프리카의 혼돈을 얘기한다. 진지한 메시지를 담고 있지만 그림 자체는 무겁지 않고 묘하게 경쾌하다. “제 예술 철학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진실을 말할 것, 두 번째는 정치 이슈처럼 많은 이들이 말하기 두려워하는 얘기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의 일상은 정치와 무관할 수 없잖아요. 다만 되도록 유머를 갖고 그려내려고 하는 게 마지막 원칙이죠. 아이들한테 야단을 칠 때도 유머 있게, 부드럽게 하면 더 잘 알아듣는 것 같거든요.” 그는 네덜란드의 프린스 클라우스 재단에서 가장 유머러스한 작가에게 주는 상을 자신이 받은 적이 있다며(2005년) 슬쩍 자기 자랑을 보냈다.

세상의 모든 고정관념을 깎지어내!

이번에 그를 서울로 불러들인 <하이라이트(Highlights)>전에 소개된 두 작품도 흥미롭다. 전시장에 들어가면 정면으로 보이는 '나는 색을 사랑한다(J'aime la Couleur)'(2010)는 스스로의 모습을 마치 등그런 햄 조각처럼 자른 강렬한 그림으로 단연 눈길을 잡아끈다. 그는 “나는 주변의 영향을 받아 회전하는 거라고 상상해 머리부터 어깨까지 나선형으로 잘라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그림은 다채로운 색상의 물감을 푹푹 흘리는 긴 붓을 입에 문 모습도 인상적이다. 세리는 이 작품을 통해 피부색을 표현하는 세상의 편견 어린 속수에 대해 할 말이 많은 듯했다. “제 피부가 짙기는 하지만 '블랙'은 아니죠. 마찬가지로 완전히 '화이트'라고 할 만한 색상의 피부도 없어요.” 그는 흔히 쓰이는 '유색(colored)'이라는 표현을 의식한 듯 피부에 색깔이 없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해본다면서 과학자들이 색의 개념에 대해 정확히 설명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11년 작인 '진짜 세계지도(La Vraie Carte du Monde)'라는 작품에 등장한 인물에 시선이 쏠리지만(이 역시 세리 자신이다)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림에 등장한 대륙들의 크기가 눈에 들어온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보다 아프리카 대륙이 크게 그려져 있기 때문이다. “제가 그저 괜한 자부심이나 욕망에 불타 아프리카 대륙을 크게 그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많은 이들이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세계지도는 좋은 지도가 아닌 것 같아요. 현재 지도를 그리는 방식으로는 아프리카 대륙이 실제 크기보다 축소된 게 사실이거든요.” 그는 진진하게 웃으면서 설명했다. '진짜 지도 찾기'라는 맥락에서 그와 뜻을 같이하는 인물 중에는 1998년 FIFA 월드컵에서 프랑스를 우승으로 이끈 전설적인 수비수 릴리앙 튀랑(Lilian Thuram)도 있다. 튀랑은 은퇴한 뒤 인종차별 반대 운동가로 변신해 전시, 행사 등을 기획하고 있는데, 아프리카의 실제 면적을 제대로 측정하는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다고. 세상의 모든 고정관념에 맞서 진실을 추구하는 데 자신이 지닌 역량을 한껏 활용하고 있는 세리 삼바. 일각에서 그를 가리켜 '화가-저널리스트(painter-journalist)'라고 하는 이유를 알 듯했다. “올해 말 대선이 있는데,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런데 콩고만이 아니라 아프리카 모든 지도자들이 권력을 한번 쥐면 거기에 집착하고 절대로 그걸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는 조셉 캅빌라 대통령의 불법 집권 영장으로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콩고의 현 상황을 개탄하면서 말했다. “계속해서 이렇게 불합리한 일이 일어나는 한 페인터-저널리스트라는 저의 소명은 없어지지 않을 것 같네요.” **글 고영선**



1 서울시립미술관(SEMA)에서 열리는 까르띠에 현대미술재단 소장품 기획전 <하이라이트(Highlights)>를 위해 서울을 찾은 세리 삼바. 2 자신의 작품을 배경으로 포즈를 취한 세리 삼바. 작품명은 'J'aime la Couleur'(나는 색을 사랑한다)(2010). 캔버스에 아크릴, 글러, 205x305cm ©세리 삼바 1, 2 Photo 임원수 3 '진짜 세계지도(La Vraie Carte du Monde)'(2011). Photo Thomas Salva / Cédric Corroy, ©Lumenio 4 세리 삼바는 2007 베니스 비엔날레에 참가해 세계인의 주목을 끌었다. Photo Jean Pigozzi, Courtesy Jean Pigozzi 5 2004년 파리의 까르띠에 현대미술재단에서 개인전을 가진 세리 삼바. Photo Jean Pigozzi, Courtesy Jean Pigozzi

Magicien

주얼리에 대한 생소한 영감을 가득 담은 까르띠에 메종의 아름다운 하이 주얼리가 서울을 찾았다. 다이아몬드와 사파이어, 에메랄드, 루벨라이트, 그리고 루비는 길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움을 넘어, 광채와 디자인, 색채로 에너지를 전달한다. 새로운 생명이 살포시 피어나는 듯한 기적을 구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까르띠에 마지씨앙 컬렉션이 지닌 진정한 예술성이며 끝나지 않는 환상적인 유희다. 까르띠에 마지씨앙 이벤트 현장의 프라이빗 뷰잉 룸에 펼쳐진 하이 주얼리의 고귀한 자태.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위) 순수한 다이아몬드의 아름다움을 정교한 컷팅과 세팅으로 완성한 드루미티완 주얼리. 플라티넘에 다양한 크기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와 로즈 컷 다이아몬드, 진주, 루비스를 세팅한 까르띠에 마지씨앙 컬렉션 에메랄드, 까르띠에.

(아래) 플라티넘에 3~4카트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메인 스톤을 중심으로 진주, 루비를 세팅한 까르띠에 마지씨앙 컬렉션 브릴리언트, 5.03카트의 오벌 컷 다이아몬드 1개, 총 0.45카트의 다이아몬드 82개를 세팅한 하이 주얼리 링, 모두 까르띠에.



신랑한 블루 컬러 사파이어의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컬렉션. 플라티넘에 총 11.83카트의 사파이어 15개와 총 13.46카트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마지씨앙 컬렉션 브릴리언트, 플라티넘에 총 5.25카트의 사파이어 8개와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마지씨앙 컬렉션 링, 플라티넘에 총 8.10카트의 쿠션 컷 사파이어 12개와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마지씨앙 컬렉션 이어링 모두 까르띠에.

화이트 골드에 67.187캐럿의 옐로 사파이어를
중심으로 옐로 다이아몬드와 화이트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미지씨앙 컬렉션 네크리스,
플루타늄에 8.177캐럿의 옐로 사파이어 1개,
총 3.937캐럿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하이 주얼리
링, 플루타늄에 6.889캐럿의 쿠션 컷
옐로 다이아몬드 1개와 말레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하이 주얼리 링 모두 **꺼르띠에**.



CARTIER MAGICIEN COLLECTION
HIGH JEWELRY AND PRECIOUS OBJECTS

CARTIER
MAGICIEN



플루타늄에 24.197캐럿의 오렌지 컬러 오팔
1개, 크리스탈, 오팔, 였스, 다이아몬드,
쿼츠, 투르말린을 사용해 정교하게 완성한 밴드
모티브의 미지씨앙 컬렉션 네크리스,
옐로 골드에 다이아몬드, 였스, 에메랄드를
세팅한 미지씨앙 컬렉션 워치 모두 **꺼르띠에**.



진귀한 그린 컬러 에메랄드를 중심으로 우아하게 완성한 하이 주얼리 컬렉션. 플래티넘에 총 21.77캐럿의 에메랄드 12개, 총 22.50캐럿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하이 주얼리 네크리스, 플래티넘에 총 11.51캐럿의 에메랄드 10개, 총 6.45캐럿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하이 주얼리 이어링, 플래티넘에 에메랄드, 총 7.27캐럿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하이 주얼리 브레이슬릿 모두 **카르띠에**.



화이트 골드 스파클, 오닉스, 가넷, 다이아몬드, 페리도트, 진주, 스페르틴 가넷을 활용해 플라워 모티프를 완성한 이국적인 감각의 마자카인 컬렉션 네크리스와 링, 이어링 세트 **카르띠에**, 문의 1566-7277



dream Jewelry

1백70년이 넘는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까르띠에의 하이 주얼리 컬렉션 '마지씨앙(Magicien)' 관련 전시회가 지난 6월 12일부터 18일까지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렸다. 반짝이는 빛으로 시선과 마음을 사로잡을, 경이로운 까르띠에 하이 주얼리 세계로 당신을 초대한다.

최대 규모의 하이 주얼리 이벤트, 까르띠에 마지씨앙

최근 글로벌 패션 하우스 브랜드들이 국내에서 잇따라 전시회를 열고 있다. 하나의 전사로 글로벌 주요 도시를 순회하는 데, 서울이 주요 개최지로 떠오르고 있는 것. 까르띠에 역시 얼마 전 서울에서 까르띠에 현대미술재단의 (호아라이트) 전을 개최한 데 이어 곧바로 역대 최대 규모의 하이 주얼리전 개최지로 또다시 서울을 선택했다. 지난 6월 12일부터 18일까지 하이 주얼리 컬렉션, 까르띠에 마지씨앙(Magicien)의 새로운 작품과 함께 브랜드 아카이브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악세서널 피스를 서울에서 최초로 공개한 것. 이는 까르띠에 역사상 한국에서 개최되는 최대 규모의 이벤트로, 까르띠에 하이 주얼리와 트레이드 피스 총 3백600여 피스를 모두 한자리에서 만나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였다. 마지씨앙 컬렉션은 미술처럼 신비로운 하이 주얼리를 관념으로 빛의 마법, 디자인의 마법, 활기를 불어넣는 마법 등 세 가지 테마를 표현한 작품으로 이루어졌다. 3개의 전시 공간을 자연 친화적 소재로 대화할 수 있는 라테탈 리움지 뿐만 아니라 VIP 고객을 위한 프라이빗 룸이 있어 마음에 드는 주얼리를 직접 보고, 착용하는 것이 가능했다. 한편 까르띠에 마지씨앙의 새로운 컬렉션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인터내셔널 이벤트를 기념해 전 세계에서 찾아온 VIP와 컬렉터, 그리고 프레스를 위해 건축가 자하 하디드가 서울의 상징, DDP에서 생대한 오프닝 갈라 디너를 진행했다.

까르띠에 하이 주얼리 세계로 여정을 떠나다

최상급 화귀 보석인 사파이어 메종의 주요 피스가 모두 한자리에 모인 만큼, 삼엄한 경비 아래 약간의 긴장감과 함께 쉽게 볼 수 없는 하이 주얼리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박한 가슴을 안고 전시회장에 입장했다. 먼저 마법의 거울이라 불리는 공간이 눈앞에 펼쳐졌는데, 아무런 장식 없이 오로지 거울만으로 가득 채워진 수많은 면으로 둘러싸인 다이아몬드의 구조 같은 느낌을 주며 앞으로 펼쳐질 마법의 여정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흑처럼 캄캄한 길을 지나 드디어 첫 번째 테마인 '빛의 마법'의 길로 들어섰다. 다이아몬드의 눈부신 아름다움으로 시선을 인도하는 이방에서는 투명한 프리즘 안에서 불꽃처럼 격정적인 광채를 뽐내며 존재감을 드러내는 최상급 다이아몬드 주얼리를 만나 볼 수 있었다. 신비로운 마법을 부리듯 자유롭게 빛을 굴절시키는 스톤의 광채가 환상적인 유희를 선사했다. 사실 까르띠에는 '남쪽 별', '우이 까르띠에', '주빌리' 등 독특한 스토리와 눈부신 광채를 지닌 스톤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의 독창성과 신비로운 매력을 일깨우는 탁월한 능력을 갖춘 까르띠에 메종의 전문가들의 손길을 통해 스톤이 더욱 강렬하고 매혹적인 광채를 발산하도록 디자인된다. 이것뿐 아니라 보석과 탁월한 커팅 기법으로 생명력을 불어넣은 작품을 통해, 절대 고갈되지 않을 까르띠에 메종의 무한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이어서 디자인의 마법으로 발광을 옮기니 골드 라이트로 연출한, 환상적이면서도 신비로운 실루엣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실각형을 이루며 천장에서 내려오는 수많은 빛줄기는 마치 절묘하게 커팅한 수많은 파수를 연상시켰는데, 그 빛 사이를 오가며 전시된 주얼리를 관람하는 기분은 꽤 황홀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목차인 활기를 불어넣는 마법 방에 도달했을 때 살아 숨 쉬는 듯한 생동감을 묘사한 주얼리 피스로 가득한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다이아몬드뿐 아니라 에메랄드와 사파이어, 오발 같은 진귀한 소재의 조화로운 하모니를 통해 주얼리 자체에 생명력을 불어넣은 것. 김미로운 향취를 머금은 꽃, 굽이쳐든 우려난 파죽의 움직임과 섬세한 화관을 비롯하여 자연 그대로의 원형과 변형된 형태 모두를 고려한 까르띠에의 감각으로 재해석한 작품을 선보였다. 까르띠에 주얼리 장인들의 탁월한 전문성과 노하우의 스톤의 입체감과 형태를 아름답게 구현하는 세공 작업을 통해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듯한 생동감을 얻게 된 것. 이처럼 진귀한 스톤을 매혹적인 주얼리로 변화시키는, 상상과 현실을 나누는 까르띠에의 독보적인 창의성으로 이루어낸 신비로운 마법의 세계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예술적으로 표현했다. 문의 1566-7277 에티어 이자현



1 지난 6월 12일부터 18일까지,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까르띠에 코리아 출범 이래 최초, 최대 규모의 하이 주얼리 이벤트 '까르띠에 마지씨앙'. 사진은 관람객들을 가장 처음으로 맞이한 '마법의 거울' 공간. 2 이번 전시회에서 가장 마지씨앙 동선에 위치한, '활기를 불어넣는 마법' 방. 꽃과 곤충 모티브 등 다양한 유색석을 세팅한 입체적인 디자인의 하이 주얼리 피스들을 만나볼 수 있었다. 3 동심원을 그리는 빛의 파동과 화려한 골드빛 프리즘을 선보인 '디자인의 마법' 공간. 4-8 이번 까르띠에 마지씨앙 전시회를 통해 처음 공개된 하이 주얼리 컬렉션의 주요 신제품. Vincent Wulvenyck ©Cartier



Golden time

가장 클래식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품격을 지닌 골드를 입은, 남녀 모두에게 잘 어울릴 만한 브랜드 대표 골드 워치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 맨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까르띠에 골드 브레이슬릿까지 모두 옐로 골드로 이루어진 마린 크 로노그래프 워치, 기묘세 패턴을 새긴 실버 골드 다이얼을 장식했으며 6시 방향에는 날짜 표시창이 위치하고, 9시 방향에는 초침 사브 다이얼이 자리잡은 감을 끈다. 6천3백만원대, 문의 02-6905-3571 **블랑팡 발레 데 캄플리트 캄핀 더** 블랑팡의 시그니처, 발레 데 캄플리트의 캄핀 더 기능을 적용한 하이 캄플리트 캄핀 더 워치다. 다이얼 중심을 따라 1부터 31까지 날짜 인덱스가 표시되어 있고, 12시 방향에는 요일과 월을 나타내는 2개의 창이 위치하며, 6시 방향에는 하우스의 상징인 악상스러운 표정의 달이 돋보이는 문메이즈 창이 자리 잡았다. 5천만 원대, 문의 02-6905-3367 **블라기리 블라기리 워치** 브랜드의 대표 클래식 라인인 자 스테다셀러로, 베젤 주위를 고대 로마의 동전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시킨 상징적인 더블 블라기리 로고로 장식했다. 핑크 골드 버전으로 선보이며, 39mm 케이스로 중성적인 디자인을 좋아하는 여성에게도 잘 어울릴 듯, 4천8백만 원대, 문의 02-2056-0172 에티어 이자현

42mm 사이즈 케이스부터 브레이슬릿까지 모두 옐로 골드로 이루어진 마린 크 로노그래프 워치, 기묘세 패턴을 새긴 실버 골드 다이얼을 장식했으며 6시 방향에는 날짜 표시창이 위치하고, 9시 방향에는 초침 사브 다이얼이 자리잡은 감을 끈다. 6천3백만원대, 문의 02-6905-3571 **블랑팡 발레 데 캄플리트 캄핀 더** 블랑팡의 시그니처, 발레 데 캄플리트의 캄핀 더 기능을 적용한 하이 캄플리트 캄핀 더 워치다. 다이얼 중심을 따라 1부터 31까지 날짜 인덱스가 표시되어 있고, 12시 방향에는 요일과 월을 나타내는 2개의 창이 위치하며, 6시 방향에는 하우스의 상징인 악상스러운 표정의 달이 돋보이는 문메이즈 창이 자리 잡았다. 5천만 원대, 문의 02-6905-3367 **블라기리 블라기리 워치** 브랜드의 대표 클래식 라인인 자 스테다셀러로, 베젤 주위를 고대 로마의 동전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시킨 상징적인 더블 블라기리 로고로 장식했다. 핑크 골드 버전으로 선보이며, 39mm 케이스로 중성적인 디자인을 좋아하는 여성에게도 잘 어울릴 듯, 4천8백만 원대, 문의 02-2056-0172 에티어 이자현





블랙 비즈 레이스 디테일의 니트 드레스 가격 미정, 화이트 슬링 백 웨지 슈즈 1백만원대 모두 보태가 배타, 실버 드림 이어링 5만원 원 반타지컬리우드.



a Monodrama

원색의 계절 속에서 더욱 돋보이는 블랙 & 화이트의 치명적인 매력. *photographed by kim yeong jun*

블랙 뷔스타에 디테일의 화이트
슬리브리스 드레스 가격 미정 **셀린느**,
진주 장식의 드림 이어링 33만원
타니 by 마네타니, 폴리워스트라스 슬링 백
슈즈 2백60만원대 로저 비비에.



블랙 테일러드 재킷 3백33만원
브루넬로 쿠치넬리, 화이트 레이스
롱 드레스 가격 미정 발렌티노,
블랙 스트랩 스틸레토 힐 가격 미정
지미주, 블루 칼라 스와로브스키 세팅
이어링 38만원 타니 by 마네타니.



화이트 시스루 니트 드레스
3백20만원 바버리,
진주 장식 골드 이어링
9만원 타니 by 마네타니.



블랙 슬리브리스 롱 드레스
가격 미정 **막스미라 알파카네,**
진주 체인 네크리스 1백만원대
에스카다, 주얼 장식 스트랩
슈즈 가격 미정 **쥬세페 자노티.**



오프 숄더 레이스 드레스 가건 미정
사넬, 크레이프 주드 드용 베르베르
에르메네즈 비에니 by 마네타니,
크리스탈 이어링 10만원대
빈티지 클리우드, 화이트 레이스
다테방의 표, 실 키퍼 링은 슈츠
1백50만원대 로저 비비에.



플러워 패턴 슬리브리스 니트 드레스와 플러워 모티브 반츠 장식의 화이트 플레어스커트 가격 미정 모두 마이클코어스 컬렉션. 화이트 스텝업 웨지 슈즈 가격 미정 라펠라. 산자기 모티브 실버 이어링 가격 미정 토마스 사보.

멀티 스트라이프 패턴 슬리브리스 롱 드레스 3백18만원 에트로. 진주 실버 드롭 이어링 가격 미정 에스카다.



헤어&메이크업 SooYoo Kim
모델 Alex Noiret
스타일리스트 채한석

- 로저 비비에 02-6905-3370
- 타니 by 미네타니 02-6905-3583
- 반타이힐리우드 02-6224-2203
- 마이클코어스 컬렉션 02-546-6090
- 셀윈스 02-6979-0607
- 에트로 02-511-2572
- 발렌티노 02-543-5125
- 라펠라 02-501-7180
- 토마스 사보 02-2143-7126
- 사셀 02-3442-09622
- 에스카다 02-3442-5760
- 막스마라 알레칸테 02-3467-8326
- 버버리 080-700-8800
- 보테가 베네통 02-3438-7601
- 브루넬로 쿠치넬라 02-3448-2931
- 지미추 02-3443-9469
- 주세페 제노티 02-543-1937

innovative Insight

샤넬이 또다시 한국을 찾았다. 예술 전시에 센세이션을 일으킨 <문화 샤넬전, 전 세계 VIP가 총출동한 크루즈 컬렉션 이후 세 번째다. 서울 디뮤지엄에서 진행되는 <마드모아젤 프리베 서울> 전시가 바로 샤넬과 한국의 세 번째 인연으로, 한국적인 감성이 깃든 특별한 여정을 통해 샤넬의 전통과 뿌리를 더욱 실감 나게 체험하는 모험을 선사한다. 샤넬 역사의 현장으로 탐방같은 디뮤지엄에서 만난 샤넬 패션 총괄 사장이 브루노 파블로브스키는 이 전시에 대해 한마디로 이렇게 말했다. “샤넬의 DNA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와 함께 나는 샤넬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이야기.

01 문화 샤넬전, 크루즈 컬렉션, 지금의 마드모아젤 프리베 서울 (Mademoiselle Privé Seoul) 전시까지 한국에서 큰 규모의 행사를 꾸준히 개최하고 있다. 특히 한국을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과는 2014년 <문화 샤넬전>으로, 2015년에는 샤넬 2016 크루즈 컬렉션으로 인연을 맺었습니다. 특히 크루즈 컬렉션은 한국의 코드를 샤넬스럽게 재해석해 선보이기 위해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아시아 시장을 넘어 전 세계 뷰티에서도 고객의 관심과 호응을 얻었고, 예상대로 큰 성공을 이뤘습니다. 이처럼 한국을 주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 샤넬이 한국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한국 고객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무엇보다 한국 시장에서 샤넬이 큰 성공을 거뒀기에 한국에 대한 애착이 매우 큼니다. 3~4년 전부터 한국을 자주 방문했는데, 이전 한국 고객을 위해 한 발 더 앞서 보다 특별한 것을 선물하고자 합니다. 대표적으로 2018년 말쯤에 한국 최초로 오픈하는 샤넬 플래그십 스토어를 예로 들 수 있어요. 새로운 플래그십 스토어를 통해 샤넬의 창의성을 모든 한국인들이 경험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었습니다. 더불어 이번 <마드모아젤 프리베 서울> 전시를 통해 한국에서 샤넬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다시금 강조하고 싶었고, 우리 존재를 정확하게 각인시키고, 샤넬 DNA는 바로 이런 것이라는, 즉 우리는 빠르게 창의성을 중요시하는 브랜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02 당신이 앞서 말했듯이 내년에 창립동에 샤넬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한다.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샤넬 플래그십 스토어 창립동은 샤넬이 가장 근래에 오픈하는 부티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곳보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부티크를 오픈할 때마다 샤넬의 모든 것을 동원해 가장 아름답고 샤넬스러운 스토어를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샤넬이 지난 매력과 장점을 모두 담아 선보일 예정이고, 무엇보다 샤넬의 창의성을 오실레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자세한 매력과 내용은 조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샤넬 매장에는 어디에 오픈하는 고유의 창의적인 정신을 느낄 수 있도록 꾸몄습니다. 서울 부티크에서도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03 문화 샤넬전은 패션계의 예술 전시 열풍을 몰고 올 정도로 센세이션이 컸다. 마드모아젤 프리베 서울도 새로운 대중적인 커뮤니케이션 형태로 생각된다. 어떻게 다각도로 새로운 방식의 전시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솔직히 말하면 샤넬 전시 이후로 명품 브랜드의 전시가 하나둘 개최되었고, 이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을 만큼 센세이션이 컸죠. (웃음) 저희가 이렇게 지속적인 전시 문화 활동을 기획하는 이유는 샤넬의 뿌리와 전통을 다시금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샤넬은 브랜드로서 운이 참 좋아요. 샤넬을 탄생시킨 사람, 즉 가브리엘 샤넬이 시대를 앞서가는 여성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광장히 창의성이 빛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오토 쿠튀르, 파인 주얼리, N5 향수 등 그 당시 샤넬이 선보인 수많은 시도는 굉장히 히트작적이고 대담했죠. 이처럼 전시 역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하는 방식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전시를 통해 색다르게 보여주는 것이죠. 앞서 언급한 샤넬의 아이코닉한 코드가 사실 80년 전에 탄생한 것들인 게 믿어지지 않아요? 그라데도 굉장히 모던하죠. 이런 오래된 아이코닉들의 과거와 현재를 이번 전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샤넬의 전시를 통해 다른 시각으로 샤넬이라는 브랜드를 마주해보면 합니다. 80년이 지난 것도 전혀 오래되지 않은 샤넬의 문화유산을 말이에요. 전시를 통해 샤넬의 문화유산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고, 이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와 예술로 풀어내고 싶습니다. 더불어 과거에서 영감을 받아 오늘날에 맞게 재해석해 꾸준히 선보이는 샤넬의 모습들 통해 샤넬이 미래 지향적인 브랜드라는 점 역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1 샤넬 패션 총괄 사장이 브루노 파블로브스키(Bruno Pavlovsky). 2 2017년 7월 19일까지 서울 디뮤지엄에서 진행되는 <마드모아젤 프리베 서울> 전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전 예약 후 무료로 관람 가능하다. 3 N5 향수의 주원료인 5월의 장미를 여상스럽고 예술적으로 재해석한 작품. 이 아름다운 공간은 N5의 매력적인 향으로 가득 차 있다. 4 알라벨레타 디자인 오토 쿠튀르 드레스를 전시한 오토 쿠튀르 비온 전시실. 5 알라벨레타 직접 샤넬 하우스 친구들의 스타일링이 담긴 모험을 담은 포토아트 전시실.

04 카멜리아, N5 향수 등 마드모아젤 샤넬을 상징하는 것은 매우 다양하다. 그중에서 샤넬을 가장 잘 대변한다고 생각하는 키워드가 있다면? 오토 쿠튀르 컬렉션이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샤넬 브랜드의 모든 기가 오토 쿠튀르에 녹아들어 있기 때문이죠. 프랑스의 오랜 장인들과 함께 작업하는 오토 쿠튀르 컬렉션은 보는 이로 하여금 감정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디테일이 섬세하고 정교합니다. 이는 그만큼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선물하고자 하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샤넬의 철학은 앞에서도 강조했지만, 창의성입니다. 샤넬만의 창의성을 발휘한 오토 쿠튀르 컬렉션은 고객들에게 선사하는 최고의 선물이죠. 더불어 한 가지 더 꼽는다면, N5를 이야기하고 싶네요. 차크 폴주에 이어 그의 아들인 올리비에 폴주가 탄생시킨 N5가죠. 이 아름다운 형은 샤넬의 DNA를 향으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경이롭고 감동적이에요. 이 모든 아이코닉한 것들에서 볼 수 있는 이번 전시에서는 샤넬이 당신에게 줄 수 있는 최상의 선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브랜드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05 8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샤넬의 아이코닉들은 시간이 지남도 극도로 모던하고 세련되었다. 대표적으로 N5를 포함한 샤넬을 대표하는 기가 역시 모든 세대를 아우른다. 그 원동력은 무엇인가? 샤넬에는 한 가족의 역사, 즉 엄마가 딸에게 물려주는 역사가 깃들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샤넬의 힘이라고 할 수 있죠. 샤넬의 모든 제품은 대부분 엄마가 딸에게 물려준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샤넬의 전설적인 모델인 바티샤 파리도 그녀의 딸 릴리 로즈 랩에게 샤넬의 제품을 물려주고, 또 딸에 이어 릴리 로즈 랩 역시 자회 유즈로 활동하고 있는 것처럼, 세대가 바뀌어도 샤넬에 충성하는 고객이 많습니다. 이처럼 한 가족의 퍼스널한 스토리가 샤넬의 아이코닉과 잘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시간이 흘러도 샤넬이 사랑받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06 하이엔드 브랜드 중 샤넬은 디지털에 매우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샤넬이라는 하이엔드 브랜드에 디지털로 확장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디지털은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커뮤니케이션 방식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실 40년 전까지만 해도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했습니다. 패션쇼가 끝나면 TV 광고나 지면을 통해 하나의 채널로, 한 가지 방식으로 전달하면 끝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는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더 쉽고 빠르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는 좋은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커뮤니케이션이 즉각적이고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항상 새로운 콘텐츠를 제공할 수밖에 없고, 브랜드 입장에서 굉장히 유연하고 민첩하게,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 채널별로 전달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것이죠. 가브리엘 백을 예로 들자면, 우리 이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영상 제작과 홍보 촬영을 하고, 더불어 소셜 미디어를 콘텐츠로 따로 만들었습니다. 받는 사람 입에서는 본인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채널을 통해 정보를 받기를 원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디지털 미디어에 친숙하죠. 그런 이유로 우리 7명의 이티스트에게 가브리엘 백이 어떤 감동을 주는지 표현해달라고 의뢰했고, 이를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전달했습니다. 디지털은 이제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었고, 이를 통해 젊은 고객들이 보다 쉽게 샤넬에 접근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전시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바로 증강현실 샵스입니다. 런던 전시 때 일부 도입했는데, 이번 서울 전시에서는 더욱 업그레이드해 선보입니다. 이 밖에도 이번 전시에서 카키오프렌즈와 협업해 진행한 제4호는 프로젝트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일 전에는 일본에서 라인과 함께 작업한 프로젝트도 있었고요. 이처럼 샤넬은 소셜 미디어와 함께 손을 잡고 일하는 기회를 점점 더 늘릴 예정입니다. 미래 고객의 특성에 맞춰 다가가는 저희의 노력이에요. 샤넬은 항상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특별한 것을 줄 수 있는 창의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브랜드니까요! 에디터 권유진

instant Youth

마치 물처럼 촉촉한 크림이 아주 빠른 플럼핑 효과를 제공한다면? 감각적인 뷰티 경험을 선사하는 시슬리가 산뜻한 텍스처에 깊은 영양을 담은 새로운 크림을 선보입니다. 바로 블랙 로즈 스킨 인퓨전 크림이 그 주인공이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고귀한 성분으로 아름다운 피부를 만드는 프리미엄 뷰티 시슬리

프랑스 문화의 품격을 담고 있는 뷰티 브랜드인 시슬리(Sisley). 고급 화장품의 대명사인 이 특별한 브랜드에서 새로운 플럼핑&라디언스 크림을 출시한다는 사실은 뷰티업계를 꽤나 흥분케 하는 반가운 소식이다. 럭셔리 스킨케어 브랜드의 가치를 고스란히 지켜나가는 시슬리의 핵심 아이템인 크림, 그리고 그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성분인 블랙 로즈 라인의 크림이라면 꼭 한번 사용해보고 싶은 제품이기도 기대는 더욱 커진다. 연약하게만 보이는 장미꽃잎에서 강력한 활성 성분을 발간한 시슬리의 블랙 로즈에 관한 집념은 이미 2011년 선보인 블랙 로즈 크림 마스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블랙 로즈 라인의 첫 번째 판매 제품인 이 마스크는 출시되자마자 뷰티 커뮤니티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물론, 지난 5년간 1백만여 개 이상 판매되었기에 효과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게다가 뷰티 제품에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는 프랑스에서 하이엔드 마스크 분야 1위를 차지했다는 것은 블랙 로즈 라인의 효능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이후 블랙 로즈 성분의 핵심 오일을 담은 오일을 선보여 다시금 그 효과를 각인시켰고, 올해 이러한 가치에 실용성과 품격을 더해 시슬리 블랙 로즈 스킨 인퓨전 크림을 선보이게 된 것이다.

탄력과 매끈한 피부를 한 번에, 블랙 로즈 스킨 인퓨전 크림

플럼핑&라디언스는 블랙 로즈 스킨 인퓨전 크림의 핵심 키워드로, 두 가지 결과를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매력적인 제품이다. 수분 공급과 탄력 증가를 동시에 해결하는 것. 이 크림을 사용하면 서 가장 놀라웠던 점은 바로 텍스처. 영양 크림의 필수 요소인 풍성하고 편안한 텍스처가 마치 물처럼 가볍고 상쾌하다는 것은 이 크림을 사용하란 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다. 이렇듯 촉촉하면서도 영양이 넘치는 텍스처를 완성한 것은 바로 블랙 로즈의 모든 성분을 활용하기 위해 시슬리가 처음으로 워터 추출물과 오일 추출물을 결합했기 때문이다. 오일이 수분을 감싼 에멀션 타입의 워터 드롭 텍스처는 크림을 바르는 순간, 초미세 수분 방울로 변하면서 피부 위에서 타지는 듯한 느낌을 준다. 이 수분 방울이 피부 깊숙이 스며들어 강력한 촉촉함을 선사하는 것. 물론 하이엔드 크림 고유의 밸런스 같은 매끄러운 마무리감은 그대로 살렸다. 두 가지 다른 종류의 장미를 사용해 소프트닝과 리프레이징 작용에 최적의 조합을 이룩했다는 것도 이 크림의 매력이다. 피부 광채 효과, 항산화 기능을 갖춘 메이 로즈와 알파 로즈 추출물을 함유해 더욱 드라마틱한 효과를 선사하는 것. 로즈 성분 이외에도 다양한 자연 성분이 피부에 활력을 주는데, 파리 꽃잎 추출물이 피부에 보습을 부여하고 히비스쿠스 꽃 추출물과 순천 각질 제거 성분은 토닝 작용을 해 피부 톤이 차분해지는 것을 방지한다. 시슬리 하이엔드 라인 제품의 가장 큰 매력인 향기 역시 특별하다. 로즈 크림에 담겨 있는 로즈 에센셜 오일이 매그놀리아, 제라늄 에센셜 오일과 결합되어 블랙 로즈 라인의 시그니처 꽃향기를 만들어낸다. 즉각적으로 상쾌한 느낌을 선사하는 향기는 이러한 특별한 조합 덕분이다. 럭셔리한 뷰티 경험을 통해 최상의 플럼핑 효과를 얻고 싶은 여성이라면 블랙 로즈 스킨 인퓨전 크림을 경험해볼 것을 추천한다. 50ml 20만원. 문의 080-549-0216 에디터 배미진



SPECIAL EVENT COUPON

<스타일 조선일보>와 시슬리가 함께하는 특별한 쿠폰 이벤트

시슬리 블랙 로즈 스킨 인퓨전 크림으로 놀라운 피부 광채와 수분 탄력의 파워를 체험해보세요! 샘플링 기간 동안 아래 매장을 방문하시면 블랙 로즈 스킨 인퓨전 크림 4ml 샘플을 증정해드립니다.

◆ **증정품** 블랙 로즈 스킨 인퓨전 크림 4ml ◆ **기간** 2017년 7월 14일(금)까지
◆ **중정 매장** 롯데백화점 본점 · 강남점 · 잠실점 · 분당점 · 서면점(부산), 신세계백화점 본점 · 강남점 · 센텀시티(부산) · 스타필드점(하남), 현대백화점 본점 · 무역센터점 · 판교점, 갤러리아백화점 대구점, AK 플라자 ◆ **문의** 080-549-0216
※ 1인 1매 한정 사용, 매장별 1백 개 한정. 증정품은 2주에 분할될 수 있습니다.

권유진 기자

hot in Summer

무더운 여름에는 핫하고 생기 넘치는 컬러로 포인트를 줄 것! 과감한 색상의 메이크업 아이템뿐 아니라, 반짝이는 태양 아래 당신의 피부를 더욱 건강하고 글로시하게 해줄 하이라이팅 파우더까지, 오직 이번 여름에만 만나볼 수 있는 뷰티 서머 리미티드 제품을 소개한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오른쪽 위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겔랑 테라코타 칼렉션 시크 트로픽 쉐어 리프트 듀오 브라운징 파우더** 브라운징과 코팅 두 가지 세이든의 온온한 골드 톤이 아우러져 자연스럽고 생기 있는 태닝 피부를 연출해주는 제품. 18g 10만 2천원대. 문의 080-343-9500 **링글름 서머 칼렉션 벨드 펄 브라운징 앤 블로싱 얼굴 윤곽과 목 라인을 컨투어링할 수 있는 두 가지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한 톤의 블로싱으로 광대뼈에 생기를 더해준 후, 어두운 톤의 브라운징으로 광대뼈 아래 부위에 쓸어주듯 라인업 연한 윤곽 에이프라인을 완성할 수 있다. 14g 7만5천원대. 문의 080-001-9500 **링글름 서머 칼렉션 르 메탈릭 아이 릿** 랩글로스 같은 모양사제인 아이샤도우. 크라이언 텍스처로 눈가에 부드럽게 발리며 워터프루프 기능이 있어 물놀이에도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현여를 태닝한 피부를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게 해줄 메탈릭한 블루 컬러로 눈에 깊이와 강렬함을 더해줄 것. 6ml 4만2천원대. **나스 2017 하이라이팅 브라운징 칼렉션 팔레트 보르드올리주** 피부를 아름답게 빛나게 해줄 4개의 진주빛 하이라이팅과 빛을 분산시키는 2개의 브라운징 구성된 팔레트로, 태닝을 더 건강하고 건강한 피부를 연출해줄 것이다. 19.2g 7만3천원. 문의 02-6905-3747 **겔랑 테라코타 칼렉션 쉐어 리프트 듀오 브라운징 파우더** 브라운징과 코팅 두 가지 세이든의 온온한 골드 톤이 아우러져 자연스럽고 생기 있는 태닝 피부를 연출해주는 제품. 18g 10만 2천원대. 문의 080-343-9500 **링글름 서머 칼렉션 벨드 펄 브라운징 앤 블로싱 얼굴 윤곽과 목 라인을 컨투어링할 수 있는 두 가지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한 톤의 블로싱으로 광대뼈에 생기를 더해준 후, 어두운 톤의 브라운징으로 광대뼈 아래 부위에 쓸어주듯 라인업 연한 윤곽 에이프라인을 완성할 수 있다. 14g 7만5천원대. 문의 080-001-9500 **링글름 서머 칼렉션 르 메탈릭 아이 릿** 랩글로스 같은 모양사제인 아이샤도우. 크라이언 텍스처로 눈가에 부드럽게 발리며 워터프루프 기능이 있어 물놀이에도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현여를 태닝한 피부를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게 해줄 메탈릭한 블루 컬러로 눈에 깊이와 강렬함을 더해줄 것. 6ml 4만2천원대. **나스 2017 하이라이팅 브라운징 칼렉션 팔레트 보르드올리주** 피부를 아름답게 빛나게 해줄 4개의 진주빛 하이라이팅과 빛을 분산시키는 2개의 브라운징 구성된 팔레트로, 태닝을 더 건강하고 건강한 피부를 연출해줄 것이다. 19.2g 7만3천원. 문의 02-6905-3747 **겔랑 테라코타 칼렉션 쉐어 리프트 듀오 브라운징 파우더** 브라운징과 코팅 두 가지 세이든의 온온한 골드 톤이 아우러져 자연스럽고 생기 있는 태닝 피부를 연출해주는 제품. 18g 10만 2천원대. 문의 080-343-9500 **링글름 서머 칼렉션 벨드 펄 브라운징 앤 블로싱 얼굴 윤곽과 목 라인을 컨투어링할 수 있는 두 가지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한 톤의 블로싱으로 광대뼈에 생기를 더해준 후, 어두운 톤의 브라운징으로 광대뼈 아래 부위에 쓸어주듯 라인업 연한 윤곽 에이프라인을 완성할 수 있다. 14g 7만5천원대. 문의 080-001-9500 **링글름 서머 칼렉션 르 메탈릭 아이 릿** 랩글로스 같은 모양사제인 아이샤도우. 크라이언 텍스처로 눈가에 부드럽게 발리며 워터프루프 기능이 있어 물놀이에도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현여를 태닝한 피부를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게 해줄 메탈릭한 블루 컬러로 눈에 깊이와 강렬함을 더해줄 것. 6ml 4만2천원대. **나스 2017 하이라이팅 브라운징 칼렉션 팔레트 보르드올리주** 피부를 아름답게 빛나게 해줄 4개의 진주빛 하이라이팅과 빛을 분산시키는 2개의 브라운징 구성된 팔레트로, 태닝을 더 건강하고 건강한 피부를 연출해줄 것이다. 19.2g 7만3천원. 문의 02-6905-3747******



magical Eyes

대담하고 창의적인 컬러와 테크닉으로 메이크업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샤넬이 아이 메이크업의 새로운 비전인 '옹브르 프리미에르'를 선보인다. 24가지 컬러와 서로 다른 2가지 텍스처로 샤넬의 대담함과 우아함의 정수를 보여줄 레이어링의 마법이 펼쳐진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대담하지만 자연스러운 레이어링 예술, 옹브르 프리미에르
강렬하고 대담한 컬러를 사용하더라도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연출하는 것. 이는 메이크업 전문가 구현할 수 있는 어려운 테크닉처럼 들리지만, 제품 하나로 별다른 테크닉 없이 '무심한 듯 시크하게' 세련되고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을 완성하는 것이 바로 샤넬 글로벌 크리에이티브 메이크업 & 컬러 디자이너 루치아 파카가 선보이는 메이크업 컬렉션의 가장 큰 장점이다. 이런 그녀의 노하우를 고스란히 담은 아이 메이크업 신제품, '옹브르 프리미에르'는 24가지 다양한 컬러와 2가지 텍스처의 대조적인 레이어링 기법을 통해 텍스처와 컬러의 효과를 극대화해 가장 자연스러우면서 세련된 메이크업을 완성하는 것이 특징. 맨 얼굴에 발라두는 자연스러운 생기를 더해줄 뉴트럴 컬러부터 스모키 아이 메이크업을 연출할 풍부한 딥 컬러, 대담하면서 세련미를 갖춘 비비드한 컬러까지, 크림과 파우더 타입의 두 가지 모노 색으로도 이루어진 옹브르 프리미에르는 하나의 컬러만 단독으로 사용해도 매력적일 뿐만 아니라 여러 컬러를 믹스해 보다 섬세하고 입체적인 아이 메이크업을 연출할 수 있다. 이 색들은 특히 서로 믹스 매치했을 때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데, 먼저 풍부한 크림 아이샤도우를 베이스로 사용한 뒤 화려한 컬러의 파우더 색도나 반짝이는 메탈릭 색도를 발라주면 더욱 풍성하고 강렬하게 연출할 수 있다. 이처럼 여러 층으로 레이어링한 컬러와 텍스처는 별뿔 효과와 은은한 광채, 그리고 사틴과 메탈의 대조를 통해 보다 입체적이고 매력적인 효과를 완성한다.

피부에 녹아내리는 듯한 세컨드 스킨 텍스처
메이크업은 무엇보다 내 피부처럼 편안해야 한다는 철학을 가진 루치아 파카는 '내 본연의 피부, 세컨드 스킨(second skin)'이라는 개념을 옹브르 프리미에르에 적용했다. 특히 피부에 녹아내리는 듯한 부드러운 텍스처의 가벼운 크림 타입인 '옹브르 프리미에르 룩웨어 크림 아이샤도우'는 그보다 더욱 심혈을 기울여 탄생시킨 샤넬의 이상작이다. 원형 크림 보틀에 담긴 이 색들은 부드러운 오일을 함유하고 있어 눈꺼풀 위에 미끄러지듯이 발리고 블렌딩을 통해 원하는 대로 발색을 조절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출시하는 파우더 타입인 '옹브르 프리미에르 룩웨어 파우더 아이샤도우'는 놀라도록 살기하고 가벼운 텍스처로, 기루 날림이 없고 피부에 섬세하고 부드럽게 착 달라붙는 점이 인상적이다. 순수한 색소들을 고농축해 발색력이 뛰어나고, 내장된 스펀지 애플리케이션으로 먼저 바른 뒤 브러시로 블렌딩하면 가장 자연스럽고 예쁜 발색의 아이 메이크업을 연출할 수 있다. 하나같이 매력적이고 실용적인 24가지 컬러는 계절에 구애 받지 않고 바를 수 있는, 즉 한 번 사용하고 버리는 평범한 컬러 색도가 아니라, 접에서 더욱 매력적이다. 이처럼 각각의 개성을 담아 아이 메이크업의 새로운 비전을 보여줄 옹브르 프리미에르. 이는 당신의 삶에 새로운 재미와 영감, 그리고 아름다운 자신감을 한껏 불어넣어줄 것이다. 옹브르 프리미에르 룩웨어 크림 아이샤도우 4g 4만7천원. 옹브르 프리미에르 룩웨어 파우더 아이샤도우 1.5g 4만7천원. 문의 080-332-2700 **에디트 권유진**

● sponsored by CHANEL

(유티터 아레오) 테가 노출된 형태가 아닌 깨끗한 렌즈로만 디자인한 클린 컷 미러 세이브가 특징인 블레이즈 RB3576N, 레이첼의 베스트셀러인 오리지널 클라시카를 한층 더 과감하게 재해석한 디자인이 트랜디하다. 24만원대, 자드래곤, 정려원 등 다수의 셀러브리티가 선택해 큰 사랑을 받은, 독특한 육각형의 핵스그립 RB3548N, 심플한 핑에 이 선글라스 하나 착용하면 금세 패션 피플로 변신할 정도로 개성 넘치는 모델이다. 22만원, 올해 가장 인기 있는 레트로 트랜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라운드형 메탈 선글라스 디자인으로, 레이첼의 베스트셀러인 메탈 라운드 RB34447, 1970년대에 등장한 제품으로, 윌릿한 형태의 크리스탈 렌즈가 아이코닉한 라운드 세이브를 더욱 돋보이게 한다. 19만원대, 개성 있는 핑크 컬러의 라운드형 클린 컷 미러 세이브와 얇은 메탈 브리지의 조화가 스타일리시한 블레이즈 RB3574N 24만원대, 모두 레이첼(Rayban).



● sponsored by RAYBAN

summer Shades

연일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 도심 속에서도, 당신이 그토록 가고 싶어 하던 휴가지에서도 자외선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트랜디하면서도 클래식한 디자인으로 멋스러운 빛을 발할 레이첼(Rayban)의 서머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유티터 아레오) 레이첼을 상징하는 에이버이티 보잉 선글라스 RB3025, 서머 시즌을 맞이 레인보우 그라데이션 빛의 반향과 리드미컬로 세련된 윌릿 있는 반전을 시도한 윌릿이 단연 돋보인다. 핑크 베이스의 9019 C2 컬러로 출시한다. 24만원, 오리지널 클라시카를 라운드형으로 재해석해 보다 부드러운 이미지를 더해줄 클라시카 RB4246, 윌릿과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한국인 얼굴형에 잘 어울리는 초콜렛이전 하나와 아이코닉인 레이첼의 전설적인 선글라스인 클라시카 RB3016, 빈티지한 핑크 컬러의 분필기로, 눈길을 사로잡는 1950년대 프렌치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았다. 28만원, 모두 레이첼(Rayban), 문의 02-501-4436 메디터 컨디션



art de Vivre

지난 5월 30일, 통의동에 위치한 한옥 갤러리 아름지기에서 블랑팡 아르 드 비브르(Art de Vivre) 프레젠테이션이 열렸다. 프랑스어로 '삶의 예술'을 뜻하는 '아르 드 비브르'를 주제로 잡은 이번 행사에서는 위치메이킹과 미식(美食)의 조화를 통해 블랑팡이 추구하는 정신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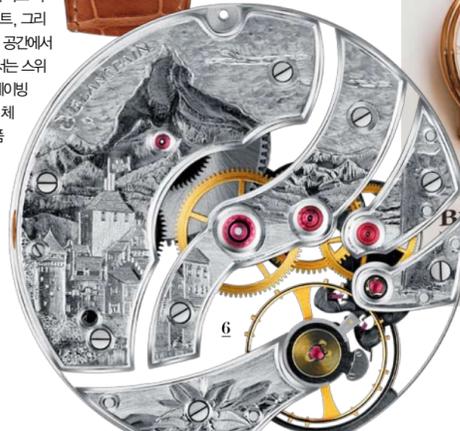
블랑팡이 제시하는 삶을 즐기는 방식, 아르 드 비브르(Art de Vivre) 현존하는 시계 브랜드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하이엔드 워치메이커 블랑팡(Blancpain). 이 브랜드가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오른 것은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기계식 워치에 대한 전통과 흔들림 없는 철학을 지키고, 끊임없는 혁신을 주도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만은 블랑팡의 역사를 표현하기엔 부족하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시계 브랜드라는 역사적 배경에만 머무르지 않고 항상 새로움을 추구하며 끊임없이 도전해온 블랑팡은 워치메이킹 기술뿐 아니라 일상에 곁들여 있는 삶의 취향과 가치를 찾아내 전달하고자 하는 노력을 이어왔다. 특히 미식의 세계와 워치메이킹의 세계가 지난 공통적 가치를 주목해 미셸 로스팅(Michel Rostang), 조엘 로부송(Joël Robuchon), 프레디 지라데(Frédéric Girardet) 등 세계적인 스타 셰프들과 오랜 기간 협업하는 등 스위스 전통 파인 워치메이킹과 미식(美食)의 조화에 남다른 조예를 드러낸 것. 시계와 음식의 상관관계라니, 의아해하는 이들도 분명 있었다. 이에 대해 블랑팡은 하이엔드 시계 한 파스를 완성하는 과정은 흡사 셰프가 정성스레 음식을 차리는 과정과도 닮았기에, 디자인과 파인 워치메이킹은 정인 정신과 생애한 작업 방식, 끊임없이 완벽함을 추구하는 진정성 등 많은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고 친절히 설명해주었다. 미식과 예술을 향유하며 새로운 것을 접하고 다양한 영감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블랑팡이 이날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제안하고자 했던 삶을 즐기는 방식, 아르 드 비브르(Art de Vivre)다.

한국 전통 가옥에서 펼쳐진 스위스 전통 위치메이킹의 세계 한국 전통 가옥을 그대로 재현한 공간인 한옥 갤러리 아름지기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전시 공간을 콘셉트에 맞게 두 곳으로 나누었다. 먼저 국내에서는 쉽게 볼 수 없었던, 전 세계에 단 한 파스만 존재하는 유니크 타임피스인 메테 데 아르(Métiers d'Art) 컬렉션을 고가 구들과 함께 전시했다. 블랑팡은 하이엔드 브랜드로서의 역사와 사명감으로 해마다 바젤월드를 통해 다양한 메테 데 아르 컬렉션을 선보여왔는데, 이는 워치메이킹 기술에 전통 공예 기술을 결합해 시계를 예술의 영역으로 끌어올린, 장인들의 수작업으로 완성되는 진정한 예술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 공간에서는 일본에 기원을 둔, 골드와 구리로 이루어진 합금을 일컫는 샤쿠도(Shakudo)에 일본 전통 공예 기법인 로쿠시(Rokusho), 혹은 표면에 나무를 새겨 그 속에 골드 소재를 채워 장식하는 상강기법(일종인 다마스퀴네(Damasquiné) 등 전통 공예 기법을 워치메이킹의 기술력에 적용한 기법)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었다. 특히 세상에 단 한 점씩만 존재하는 유니크 피스를 한자리에 총망라하고, 블랑팡의 인그레이빙 마스터와 그가 작업한 디자인, 로터와 무브먼트, 그리고 다수의 메테 데 아르 워치 컬렉션을 브리자르(Le Brasserie)에 위치한 블랑팡 매뉴팩처 외의 공간에서 선보인 것은 브랜드 역사상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더욱 의미 깊었다. 더불어 행사장 한편에서는 스위스 본사에서 직접 한국을 방문한 인그레이빙 마스터가 실재 유니크 피스 다이얼을 직접 인그레이빙 하는 작업 과정을 시연했는데, 이는 관람객들로 하여금 블랑팡의 오랜 전통을 보다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게 한 아이디어다. 또 다른 공간에서는 2017 바젤월드에서 선보인 블랑팡의 신제품을 파에르 가니에르 서울에서 마련한 핑크 푸드와 함께 디스플레이했는데, 미술생 2 스타를 획득한 파에르 가니에르 서울의 셰프들이 라이브 퍼포먼스를 통해 만들어주는 카니페를 맛볼 수 있어 볼거리를 더욱 풍성하게 해주었다. 특히 이러한 재미있는 구성은 블랑팡이 과거에 제작한 영상 중 하나인 'Passion for Excellence(패션 포 엑셀런스, 탁월함을 향한 열정에서 착안한 것으로, 블랑팡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즉 하이엔드 시계를 완성하는 과정이 음식을 차리는 과정과도 흡사하다는 사실을 보다 부드럽게,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강렬하게 관객들에게 전달했다. 문의 02-6905-3367 메디터 컨디션

● sponsored by BLANCPAIN



- 1, 2 지난 5월 30일, 통의동에 위치한 한옥 갤러리, 아름지기에서 열린 블랑팡 '아르 드 비브르' 프레젠테이션 현장.
- 3 스위스 본사에서 온 인그레이빙 마스터가 직접 작업 과정을 시연하며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다. 4 정밀한 엔지니어는 부채 위에 얇은 금시를 써주는 캘리그래피 마스터를 진행했다. 5 스위스 국화인 에델바이스를 에델 메인팅과 상보에 상강기법으로 표현한 메테 데 아르 피스. 6 스위스 풍경을 정교하게 인그레이빙한 빌라레그렌드 데코레이션의 무브먼트 뒷면.



a creative Innovator

혁신적인 소재와 디자인을 끊임없이 개발하며 미래를 향해 가는 스위스 워치 브랜드 라도(Rado). “혁신이 멈추면 그 브랜드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말하는 라도의 CEO 마티아스 브레스찬(Matthias Breschan)을 만나 라도가 일으킨 혁신과 앞으로 라도가 나아갈 방향과 전략에 대해 물었다.

01 라도를 생각하면 진보와 혁신, 새로움이 떠오른다. 최신의 브랜드 가치로 삼는 것은 무엇인지? 라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혁신적인 소재, 바로 세라믹일 것입니다. 이는 라도가 지난 50여 년간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어떤 것에 가장 중점적으로 집중했는지 알게 해주는 대목이기도 하죠. 라도는 1986년 하이테크 세라믹 소재를 최초로 시장에 접목한 ‘인테그랄’을 시작으로 세라믹 소재를 대표하는 워치 브랜드로 상징적인 이미지를 쌓아왔으며, 신기술, 신소재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라도는 시계 브랜드 역사상 비교적 오래되지 않은 영(young)한 브랜드에 속합니다. 그 때문에 라도의 탄생은 고가의 전통적인 스위스 워치메이커들과 경쟁하지 않고, 시계의 제2 패트라 할 수 있는 ‘하우징(housing)’에 중점을 두자는 철저한 전략에서 비롯되었죠. 라도는 앞서 말한 하우징, 더 정확히 말하자면 소재와 디자인 개발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50년이 지난 현재 혁신적인 소재와 디자인이 특징인 대표적인 시계 브랜드로 인지를 다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라도를 특별하게 하는 강점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는 혁신적인 소재 개발에 집중할 것입니다.

02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판매되는 라도의 모델은 무엇인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단연 하이테크 세라믹 소재의 ‘하이퍼블루 오토 크로노’입니다. 라도의 대체로운 테크놀로지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죠. 또 이 모델은 시계 제조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제품입니다. 시계엔지니어들이 유일하게 하나의 물체로 된(monobloc) 하이테크 세라믹 구조를 따며, 케이스 양 측면의 스테인리스 스틸 브래킷이 케이스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오토블록 구조를 만드는 데만도 굉장한 기술력이 필요한데, 하이퍼블루 오토 크로노 워치는 하이테크 세라믹을 적용한 베젤 위에 더욱 까다롭다는 레이저 인그레이빙을 통해 타카미터 눈금을 새긴, 라도의 숙련된 기술력과 노하우를 집약한 제품입니다. 사실 세라믹을 이렇게까지 능숙하게 다루는 시계 브랜드도 많지 않지만, 라도는 그에 비해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대로 제인해 소비자들에게 어필하는 것 같습니다. 또 기존 심플한 디자인 중 새롭고 혁신적인 모델이기에 젊은 고객층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03 수많은 디자인상을 수상할 정도로 제품은 물론 광고 캠페인까지 굉장히 실험하고 디자인적이다. 이러한 브랜드 DNA를 유지하기 위해 디자인팀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다른 시계 브랜드와 다른 방식으로 라도인 팀을 유지하거나 디자인 요소에 투자하는 부분이 있는지? 디자인은 라도를 혁신적으로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그렇기에 라도는 디자인에 중점을 두고 투자하는 편이죠. 혁신을 멈추면 그 브랜드는 죽은 게 다름없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라도는 항상 새로운 시도를 하곤 합니다. “고인 물은 썩는”이란 말이 있었지만 항상 혁신을 위해 한곳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분야 사람들과 협업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 준비를 하는 것이죠. 되도록 이전에 시계 브랜드와 협업하지 않았던 디자이너와 작업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신선한 제안을 하기 때문이죠. 이를테면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개발할 도전 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새로운 세이프와 컬러를 받아들이게끔 합니다. 그러한 협업으로 탄생한 것이 바로 독일 출신 유명 산업 디자이너 콘스탄틴 그라치와 함께 완성한 새로운 버전의 세라믹워치입니다. 이번 2017 바젤월드를 통해 선보인 모델 중 미국 디자이너 샘 아모이와 콜라베이션해 선보인 라도 트루 블레이즈를 예로 들자면, 맨 처음 디자이너가 제안한 것은 트루 모델의 다이얼 전체를 다이아몬드로 풀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업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먼저 4만달러가 넘는 비용이 발생하는데, 보통 3백만원에서 5백만원 사이를 오가는 라도 제품의 평균 가격대에도 큰 차이가 나며, 무엇보다도 브랜드 아이덴티티에도 맞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도 다이아몬드처럼 아름답고 빈틈없이도 합리적인 가격대로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과 신기술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많은 노력과 연구 끝에 탄생한 것이 바로 칼바니 그로 스킨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 다이아몬드 파우더로, 다이아몬드와 동일한 광택을 구현하지만 가격은 훨씬 더 낮출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매년 새로운 디자이너들과의 협업은 기존에 라도가 가지 않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며, 우리에게 늘 도전 의식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렇기에 라도는 그들과 함께하는 창의적인 과정을 사랑합니다.

04 올해는 트렌드 분석과 함께하는 협업을 통해 신제품을 선보였다. 시계업계가 아닌 다른 분야의 인물과 협업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 과정에서 브랜드가 얻는 가치는 무엇인지? 라도는 그동안 혁신적인 소재와 디자인에 관한 테크놀로지 관련 메시지를 소비자들에게 전했었습니다. 라도의 대표적인 세라믹 소재인 하디라노 스크래치프루프(긁힘 방지) 소재의 사용, 편안한 착용감, 인티 알레르기, 착용하는 이의 체온에 맞춰지는 온도 등 기술적인 부분만 나열한 일명 ‘콜드 메시지(cold message)’로 고객과 소통했습니다. 하지만 라도는 이러한 기술적인 메시지보다 소비자에게 좀 더 감성적으로 다가가기 원합니다. 아티스틱 이페 시계는 더 이상 단순한 시계를 알려주는 도구



1 라도 CEO 마티아스 브레스찬(Matthias Breschan).



2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타카미터 기능을 추가한 라도 하이퍼블루 오토메틱 크로노그래프 타카미터. 3 라도는 더욱 창의적인 방식으로 브랜드를 이어가기 위해 트렌드 예측 전문가 리다비이 에델쿠르트와 함께 시계의 초상이라는 주제로 최신 컬렉션을 시계에 담아냈다. 4 미국 디자이너 샘 아모이와 콜라베이션해 선보인, 화려한 반짝임을 선사하는 라도 트루 블레이즈.



5 (왼쪽부터)이탈리아 예술가 주세페 페노네의 작품 Foglie di Pietra가 이 도시를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품고 있다. 20이탈리아의 저명한 현대 조각가 주세페 페노네. 3 주세페 페노네의 작품 중에서도 매우 세밀한 작업으로 꼽히는 Foglie di Pietra. 황동으로 제작된 나무 위에 대리석 조각품을 설치했다. 4 Foglie di Pietra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과정. 5 (왼쪽부터)이탈리아 예술가 주세페 페노네, 팬디 창립주의 손녀이자 디자이너인 샬리 벤주라니 팬디, 팬디 CEO 피에트로 베라니. 6 Foglie di Pietra를 제작하는 과정. 7 지난 5월 22일에는 팬디의 주요 인사들을 초청해 Foglie di Pietra의 공개를 축하하는 디너파티를 진행했다.

가입니다. 남성들에게 손목시계는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표현해주는 수단이죠. 남성들은 보통 수트를 입습니다. 저만 해도 지금 재킷과 팬츠, 셔츠를 입고있고, 조금 더 격식을 차려야 할 때는 타이카미티 메이 하죠. 이러한 딱딱하고 정형화된 스타일 안에서 시계는 개개인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추위를 대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스포츠 워치를 차고 있다면, 당장 라바니스 워를 달리기 위해서가 아니라(스포츠 활동을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스포티한 캐릭터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죠. 이처럼 우리가 트렌드 분석과 리다비이 에델쿠르트와 함께한 것은 우리의 메시지를 좀 더 트렌드하고 젊은 고객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올해 라도에서는 처음으로 브라운·블루·그린 세라믹 색상을 개발했는데, 이는 몇 년 전 그녀가 세상이 좀 더 시(poetry)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이죠. 세상은 너무 복잡하기 에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보호받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컬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브라운은 땅의 색이기 때문에 그 색을 통해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고, 그 색 시계를 착용했을 때도 이와 동일한 편안함을 느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라도의 세라믹 시계가 가볍고 흡입이 잘 나지 않으며 알레르기 걱정이 없는, 제의 피부와도 깊이 착용하기 우수하다는 테크놀로지 메시지를 에델쿠르트가 조금 더 글래머러스하고 시크하게 표현해줄 거 기대합니다.

05 오랫동안 스위치 그룹에서 일한 CEO로서 스위스 워치의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스위스 시계의 경쟁은 굉장히 오래 가다가 지속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바젤 페어에서 매년 우리가 평소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브랜드의 시계들이 비싼 가격을 달고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제품이 5년이 지난 후, 10년이 지난 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은 매우 낮죠. 하지만 스위스 브랜드는 수십 년, 수백 년 이 지난 후 계속 그 자리를 지킵니다. 실제로 스위치 그룹에는 수백 년의 유구한 역사를 지닌 워치메이커 브랜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위스 워치의 가치는 시계의 본질이라고도 할 수 있는, 스위스 메이드 메카니즘 무브먼트 기술력에서 비롯됩니다. 스위스 워치의 명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시계에 대한 수많은 노하우가 있고, 브랜드 고유의 본질을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06 오메가, 롤렉스, 루빈, 해밀턴 등 다양한 스위치 그룹 워치 브랜드를 접하는 한국 소비자에게 라도가 어떤 브랜드로 각인되길 원하는지? 혁신적인 기술력을 갖춘 시계 브랜드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요즘 많은 시계 브랜드들이 하나 할 거 없이 럭셔리를 자랑하며 그 본질을 망각한 채 오로지 가격을 올리는 데 집중합니다. 하지만 라도는 스위치 그룹 내에서 우에는 오메가가, 아래에는 티스토 워치까지 모든 가격대를 지켜나가며 새로운 기술과 소재 개발에 집중해 5년, 10년, 20년이 지난 후에도 가치를 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에디터 이자연**

8 Sponsored by RADO



1 로마 팔라초 펜디 본시 앞에는 황동 나무와 대리석으로 만든 이탈리아 예술가 주세페 페노네의 작품 Foglie di Pietra가 이 도시를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품고 있다. 20이탈리아의 저명한 현대 조각가 주세페 페노네. 3 주세페 페노네의 작품 중에서도 매우 세밀한 작업으로 꼽히는 Foglie di Pietra. 황동으로 제작된 나무 위에 대리석 조각품을 설치했다. 4 Foglie di Pietra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과정. 5 (왼쪽부터)이탈리아 예술가 주세페 페노네, 팬디 창립주의 손녀이자 디자이너인 샬리 벤주라니 팬디, 팬디 CEO 피에트로 베라니. 6 Foglie di Pietra를 제작하는 과정. 7 지난 5월 22일에는 팬디의 주요 인사들을 초청해 Foglie di Pietra의 공개를 축하하는 디너파티를 진행했다.



9 시안 세를 펜디



10



homage to Roma

지난 5월 22일, 로마 라르고 골도니의 팔라초 펜디 앞. 로마의 중심부인 이곳에, 지나가는 모든 이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특별한 작품이 공개되었다. 펜디가 브랜드의 근간인 로마와 이곳을 방문하는 수백만의 사람들을 위해 선물한 이탈리아 예술가 주세페 페노네의 작품 Foglie di Pietra(돌의 잎사귀)가 바로 그것이다.

펜디, 로마에 경의를 표하다

펜디 로마(FENDI ROMA). 90년이 넘는 펜디의 오랜 역사와 전통, 브랜드의 정체성은 로고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브랜드의 근간인 이탈리아 로마에서 확인할 수 있다. 펜디는 그간 로마의 벨 수 없는 연결 고리로 이를 바탕으로 한 브랜드의 DNA를 다짐고 확고히 하며 로마의 상징인 트레비 분수 복원 사업을 후원하고 로마의 문화 유산을 보존하는 활동을 지속해왔다. 그리고 지난 5월, 로마를 위한 특별한 선물을 공개해 펜디와 로마의 강렬하고 운명적인 유대감을 다시 한번 공고히 했다. 바로 로마 라르고 골도니의 팔라초 펜디 건물 앞에 이탈리아의 저명한 예술가 주세페 페노네의 현대미술 작품을 설치한 것. 팔라초 펜디 건물 높이에 따라서는 각 18m, 9m 높이 활동 나무 두 그루 위에 가지들이 얽히고설킨 대리석 조각품을 설치한 이 작품은 주세페 페노네의 작품 중에서도 매우 세밀한 작업으로 꼽힐 정도로 작품성을 인정 받았다. 펜디는 지난 1월 27일부터 7월 16일까지, 본사인 팔라초 델라 차펠라 이탈리아에서 주세페 페노네의 개인전 《메트리스》를 개최하고, 그의 작품을 로마와 시민들에게 선물함으로써 펜디의 근간인 로마에 경의를 표하는 뜻깊은 문화 후원 활동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로마 문화유산 감독인 클라우디오 파리시 프레스체는 “중부한 표현력을 지닌 강렬함으로 라르고 골도니를 영구적으로 장식할 Foglie di Pietra는 이탈리아에서 가장 위대한 현대 조각가 중 한 명인 예술과 문화에 선사하는 위대한 선물입니다. 펜디가 로마 시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기 위한 새로운 방식의 후원을 통해 한정한 선물이라고 칭찬을 보냈다. 더불어 펜디 회장인 피에트로 베라니는 “주세페 페노네의 경이롭고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로마, 로마 시민, 그리고 매일같이 이탈리아를 방문하는 수백만의 관광객에게 선물하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이 작품은 펜디가 로마와 얼마나 깊이 연려되어 있는지, 펜디의 역사에서 이 도시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페노네는 이탈리아가 놓은 세계적인 예술가이며 창작력, 송과한 기교, 전통과 혁신의 끊임없는 대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펜디의 핵심 가치에 부합합니다”라고 설명했다.

로마의 도시 풍경에 완벽하게 녹아들다

주세페 페노네는 현대미술에서 중요한 인물이다. 1960년대에 이탈리아에서 발생한 아방가르드 운동에 참여한 페노네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현대 조각가로 성장했다. 2013년에는 이탈리아 예술가로서 유일하게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에서 대대적인 개인전을 열어 오늘날 현대 조각 예술의 역사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나무, 밀랍, 가죽, 대리석, 황동 등의 재료를 세심하게 선정하고 이를 변화하는 자연의 힘을 이용해 아름답게 표현하는 그의 작품은 조각적인 기교를 통해 자연의 풍요로움과 간결함을 드러내는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시급한 사안인 생태와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올해 펜디의 후원을 통해 로마의 중심 부인 라르고 골도니에 설치한 그의 대표작 Foglie di Pietra는 자연과 문화의 영원한 결합점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일약이런 문화에 대한 갈망과 낭만적 향수를 끌어내 자연과 인생사의 흐름 사이에 생기는 깊은 합성 작용을 예언하는 작품이다. 이는 오랜 전통을 지닌 로마 건축물들 사이에 설치되어 이탈리아 수도의 1천 년 역사 속에서 다양한 순간과 함께하면서 로마의 풍경, 역사와 어우러진다. 황동과 대리석 등의 귀한 재료를 사용해 로마 바로크 시대의 대리석과 존재하지 않는 것을 그려는 환각법을 연상시키는데, 작품의 나뭇가지들에 삽입한 유적 파편은 고대와 중세를 떠올리게 한다. 로마 부시장 루카 베라니코는 이 작품과 관련해 “라르고 골도니에 설치한 이 작품은 이탈리아 수도 로마의 문화의 내일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새로운 대화를 이끌어냅니다. 이는 도시가 여러 방면에서 모든 사람에게 예술과 과학적 발전의 혜택을 자유롭게 누릴 권리를 돌려주는 신호라고 볼 수 있죠”라고 말했다. 이처럼 로마의 역사에 밀접하게 연결된 동시에 도시의 현재와 미래에도 깊이 뿌리내린 Foglie di Pietra는 로마의 공공장소에 영구적으로 설치하는 최초의 현대미술 작품이자, 이탈리아 수도 로마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역사적 상징물로 영원히 자리 잡을 것이며, 나아가 펜디의 가치와 전통을 고스란히 담은 역사적 후원의 결과물로 기억될 것이다. 문의 02-2056-9023 **에디터 권유진**



11

editor's Pick

비캉스 시즌을 앞두고 <스타일 조선티보>가 제안하는, 뷰티 파우치에 꼭 챙겨 가야 할 아이템,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데코르테 AQMW 아이글로우 켈 트크은 태안 아래서는 보석처럼 반짝이는 메이크업이 눈에 띈다. 이 아이세드는 크리미하고 폭신한 텍스처로, 눈두덩에 바른후 촉촉한 윤기와 함께 산명한 발색력을 자랑한다. 살짝 태닝한 피부에 골드빛 핏을 더해주는 아이글로우 켈을 발라주면 더욱 매력적으로 보일 듯. 6g 3만2천원, 문의 080-568-3111, *by 에디터 이지연*

대상디바 메이크업즈 핑키 아이즈 네일 톱 & 메이크업즈 프리미엄 페디큐어 북이는 젤 네일로 유명세를 탄, 대상디바의 메이크업즈 제품. 집에서 혼자서도 손톱에 맞는 모양을 찾아 붙이면 되는 셀프 케어가 가능한 이 제품은 종류만 해도 수만 가지다. 최근엔 네일 아티스트로 유명한 은우와 협업해 탄생시킨 사랑스러운 네일 톱과 비캉스 시즌을 맞아해 선보이는 페디큐어 톱까지 선보인다. 휴가를 코앞에 두고도 아직 네일 & 페디 케어를 받지 못한 이들이라면 당장 시도해볼 것 9.9원 8팩~2만9천원, 문의 0502-090-0000, *by 에디터 이지연*

에나미 프리미엄 나이스스 스킨케어 라인에서는 편안한 헤어 브러시처럼 보이지만 두피용으로 특화한, 루프형 핀으로 제작했다. 이 브러시가 두피 표면의 주요 인맥점과 림프 경로를 자극해 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두피에 쌓인 각질과 먼지를 부드럽고 효과적으로 제거해준다. 두피를 마사지하듯 빗어주면 두피 마사지를 받는 듯 광채가 시원하고, 힘을 주어 빗어도 두피가 아프거나 자극을 받지 않는다. 2만9천원, 문의 02-3440-2905, *by 에디터 권유진*

헤라 매직 스타터 투명한 빛으로 피부 톤을 완성해주는 베이스 제품. '셀프 필터'라는 애칭처럼 촉촉하고 매끄러운 피맛감을 실려 사탕스러운 피부를 완성해준다. 반투명 커버 시스템으로 미치 조영만큼 비촉 두어 여름철 촉촉한 피부를 회사까지 연출해준다. 35ml 4만7천원, 문의 080-023-5454, *by 에디터 배지진*

나스 클리안트 마스크 아이리온이 번드나 끊기지 않고 아주 부드럽게 그려지는 메이크업 볼륨 아이리온이다. 아이리온을 그린 후 손으로 문질러도 라인이 번지지 않는다. 손의 각도와 힘 조절에 따라 아주 얇게, 또는 스키니 메이크업용으로 두껍게 라인을 자유자재로 그릴 수 있어 초보자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 0.28g 9만4천원, 문의 02-6905-3747, *by 에디터 권유진*

더하스드리 오브 후비합 순한 에센스 스페셜 에디션 더하스드리 오브 후에서 출시하는 스페셜 에디션은 언제 구매해도 후회가 없을 정도로 가성비가 뛰어나다. 이 제품 역시 베스트셀러인 비합 순한 에센스를 대량으로 제공하고 공짜로: 수 라인의 스킨케어 4종을 미니-버전으로 함께 구매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인다. 11만원, 문의 080-023-7007, *by 에디터 배지진*

이오메리엔트 모이스춰 비온드 리즈부비오일 크림 태안열에 배양된 수분을 금속 충전형기에 제작이다. 인체의 수분 성분과 가장 유사하다는 미니무 수액을 담은 이 크림은 피부에 지친 피부에 닿는 순간 표면의 열을 내리고 수분을 즉각 공급해 준다. 50ml 12만원대, 문의 080-020-5757, *by 에디터 이지연*

산티마리아노벨라 토니코 페르 라 pelle 토니코에 꽤 기다란 편인데, 200% 만족감을 준 완벽한 인성 토니코. 독특하게 일면에 메이크업과 피부관리를 함께 하는 자극으로 피부가 차분하고 촉촉해진다. 냉고에 넣어두고 차갑게 사용하면 콜링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 컬러와 향에 비해 가격도 합리적인 편으로, 강력하게 추천한다. 250ml 6만9천원, 문의 02-546-1612, *by 에디터 배지진*

샤넬 레 주쉴리 클로우 내츄럴 아이샤드 필러트 햇볕에 그을린 듯 자연스럽고 건강한 톤을 연출하는 샤넬 레 주쉴리 클로우의 색도 필러트다. 눈가는 물론 눈썹에 까지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자연스러운 컬러로 구성된 이 제품 하나만 아이 메이크업은 걱정 끝! 4.5g 9만원, 문의 080-332-2700, *by 에디터 권유진*

다들 다들스킨 포어비스트림 킨트 퍼펙트 매트 파우더 일명 '남색 팩트'라 불려오던 이 제품은 바르자마자 피부의 유분을 싹 잡아주고, 보습보존한 마무리감을 선사해 화장 시점부터 에디터가 애용하던 제품이다. 몇 번의 리뉴얼을 통해 다시 만난 매트 파우더는 인자가 매우 고풍하고 아주 가벼운 텍스처와 더욱 길어진 지속력을 자랑한다. 아침 기온 메이크업 후 아주 얇게 레오아일링해 발라주거나, 수정 메이크업으로 사용하면 효과적이다. 9g 8만2천원대, 문의 02-3438-9631, *by 에디터 이지연*

달광 하이dra 스킨 라이온 24시간 지속되는 최상의 보습력을 갖춘 제품. 가볍고 산뜻한 여름에 쓰기 좋은 제품이다. 젤 타입이라 끈적임 없이 빠르게 스며든다. 50ml 6만8천원, 문의 02-3440-2673, *by 에디터 배지진*

랑콤 셀머 스킨 로 에탈리코 아이리온 리프로그래밍 샐린 리퀴드 타입의 스킨형 아이세도, 틴트라는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 크리미한 텍스처가 피부에 스프레드들 확 밀착된다. 보이는 그대로의 색이 발색될 뿐만 아니라 여러 번 터치해도 뽀얗지 않고 부드럽게 발린다. 특히 청량한 바다를 담은 아쿠아 블루는 단연 주목해야 할 컬러! 6ml 4만2천원대, 문의 080-001-9600, *by 에디터 권유진*

통 포드 뷰티 스킨 디포자노는 이 향을 일으키는 수년 전 향가 때 다녀온 이탈리아 남부 포지타노의 이름에서 영감을 느꼈다. 햇살을 받아 더욱 청량하게 빛나는 바다, 그리고 갈색 끝에는 간혹 물결이 이국적인 정취를 뽐내던 포지타노! 통 포드 역시 이탈리아 아름다운 포지타노의 풍경에서 영감을 받아 상상해낸 메가리트의 시트러스 향을 베이스로 한 시트러스 플로럴 향수를 탄생시켰다. 상큼한 첫 향부터 바나나 향까지 깨끗하고 따스하게 남는 잔향까지, 개성적으로 통 포드 향수 중 제일 좋아하는 향수다. 50ml 2만원, 문의 02-3440-2760, *by 에디터 권유진*



LIFESTYLE



LG전자 스타일러 LG전자는 순수한 물로 만드는 트루 스팀으로 옷에 밴 냄새와 생활 구멍을 없애주는 스타일러 제품을 소개한다. 옷장처럼 생긴 이곳에 옷을 보관하면, 무빙 행어가 1분에 최대 2백 회 움직이면서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고, 건조뿐 아니라 제습 기능까지 경제 여름철에도 활용도가 높다. 문의 02-2673-1148

BEAUTY



글레드백 보메



샤넬



샤넬

글레드백 보메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 글레드백 보메는 싱가포르 아웃도 로드 만다린 갤러리에 아시아 최초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했다. 브랜드의 키워드이기도 한 '우한한 광채'를 콘셉트로 꾸민 부티크는 다각도에서 빛을 발하는 보석 같은 특수 조명에 외벽을 비추고 있으며 내부는 스스로 빛을 발하는 건강한 피부 세포, '브라더리드 셀'을 의미하는 1만2천 개의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탈로 장식했다. 문의 02-3156-0114

샤넬 2017 옹브르 프리미에르 샤넬은 글로벌 크리에이티브 메이크업 & 컬러 디자이너 루치아 파카가 아이 메이크업의 새로운 비전인 '옹브르 프리미에르' 컬렉션을 선보인다. 칠감이 가볍고 신뜻한 옹브르 프리미에르 크림 아이세도부터 드로우 텍스처의 파우더 아이세도, 27가지 타입으로 이루어졌으며, 컬러는 총 247가지의 다양한 모노 컬러로 출시한다. 문의 080-332-2700

샤넬 블랙 로즈 스킨 인퓨전 크림 샤넬의 독보적인 워터 드롭 텍스처와 감각적인 경험을 선사할 블랙 로즈 스킨 인퓨전 크림을 소개한다. 블랙 로즈의 오일 성분 추출물과 메이 로즈의 플로럴 워터, 세어 오일, 케일리아 오일을 결합해 피부에 부드러운 촉촉한 감각적인 향을 제공하며, 수분 공급과 탄력 증가 효과를 한 번에 선사할 것이다. 문의 080-549-0216

SHOWROOM

스와로브스키 블랙스완 롱 아이링 스와로브스키는 브랜드의 타임리스 아이리온 블랙스완 컬렉션에 새로운 모델, 블랙스완 롱 아이링을 추가했다. 블랙스완으로 장식한 스완 세이프에 롱 드롭형 체인을 더해 여성스러움을 배제한 이 제품은 기존의 다른 스와로브스키 주얼리외도 믹스 매치하기 좋은 디자인으로 선보인다. 문의 02-514-9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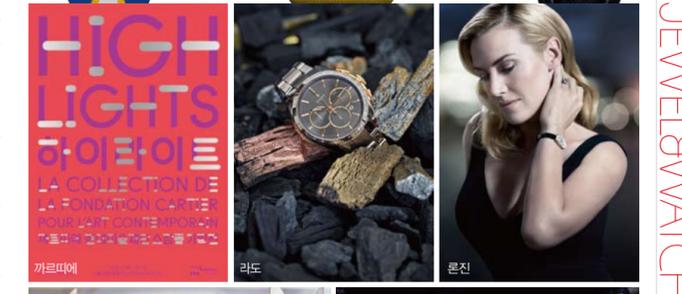
티쏘 퀵스터 NBA 스페셜 에디션 티쏘는 NBA(전미농구협회), WNBA(전미여자농구협회), NBA D-League(NBA 디벨로프먼트 리그)에서 최초의 공식 타임카피로 선정된 것을 기념하며 특별한 에디션을 출시한다.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브루클린 넉츠 등 NBA 각 팀의 로고와 색상을 반영한 나토 스트랩과 팀 로고를 새긴 백 케이스가 특징이다. 문의 02-3149-8237

리처드 밀 RM 27-03 투르비옹 리처드 밀 스페셜 출신의 테니스 챔피언 라파엘 나달과 칼라베라 이산해 완성한 'RM27-03 투르비옹' 워치를 소개한다. 레드와 옐로의 강렬한 색상으로 표현된 퀵스터 TPT* 소재의 워치로, 수심 50m까지 방수 가능하며 금속 알레르기 유발하지 않는다. 생동감과 스포티함을 전면에 내세운 이 워치는 50개 한정 수량으로 출시된다. 문의 02-512-13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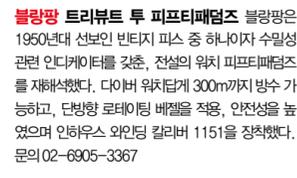
블랑팡 트리뷰트 투 피프티퍼센트 블랑팡은 1950년대 선보인 반티지 피스 중 하나이자 수일성 관련 인디케이터를 갖춘, 전설의 워치 피프티퍼센트를 재해석했다. 다이아 워치탑에 300m까지 방수가 가능하고, 단방향 로테팅 베젤을 적용, 안전성을 높였으며 인하우스 와인딩 칼리버 1151을 장착했다. 문의 02-6905-3367

까르띠에 현대미술재단 소장품 기획전 <하이라이트> 까르띠에는 지난 5월 30일부터 8월 15일까지 파리 소재 까르띠에 현대미술재단의 세계적인 컬렉션을 서울시립미술관(SeMA)에서 아시아 최대 규모로 선보이는 <하이라이트(Highlights)>전을 개최한다. 까르띠에 재단과 SeMA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 기획된 이 전시는 전 세계 25명 작가의 작품 1백여 점을 SeMA 개관 이래 최초로 전관에서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문의 1566-7277

리도 하이퍼블루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 타기미터 리도는 모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타기미터 기능을 추가한 하이퍼블루를 소개한다. 크로노그래프 타기미터 워치를 소개한다. 킬로미터나 마일 등의 단위에 구애받지 않고 이동 시간이나 거리에 따라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타기미터는 일체형 세라믹 모노블록 케이스 베젤에 화이트 슈퍼 루미노바 차분해, 어두운 곳에서도 속도를 정확하게



까르띠에, 리도, 론진



블랑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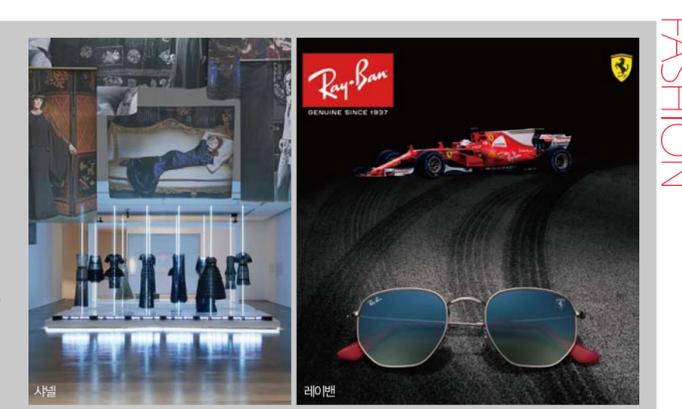
캘빈클라인 워치 앤 주얼리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문의 02-2639-1964

론진 심포테 론진은 여성스러운 타원형 케이스가 돋보이는 '심포테' 워치를 소개한다. 인생을 영영한 파도만스라 여기는 여성을 위한 시계로, 다이아몬드 세팅 버전과 스틸 버전의 케이스에 XS 사이즈부터 L까지 총 4가지 사이즈로 선보이며 가죽 스트랩과 메시 스틸 브레이슬릿 중 선택할 수 있다. 문의 02-310-1597

몽블랑 블랙 앤 화이트 워치 몽블랑에서는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블랙 앤 화이트(Black and White Week)'를 진행했다. 이는 몽블랑의 2017년 신제품을 공개하는 글로벌 전시 프로젝트로, 시계와 펜, 가죽 제품, 액세서리 등을 모두 한자리에서 미리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였다. 문의 1670-4810

캘빈클라인 워치 앤 주얼리 2017 F/W 프레젠테이션 캘빈클라인 워치 앤 주얼리는 '도발적인 젊음



샤넬, 레이벤



스와로브스키

JEWELSWATCH

FASHION